24시간 끊김없는 크리스천 인터넷 음악방송
CCM CCAST

기독일보

당신이 찾는 모든 책 예스24에 있다!
yes24
지금바로 주문하기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677호

"한국교회, '복음통일' 이뤄주실 것 믿고 준비해야"

내년 1월 13~15일 2025 통일비전캠프 앞두고 기자간담회 열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한반도 모습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2025 통일비전캠프가 열린다.

2025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열리는 통일비전캠프는 통일의 새나라를 꿈꾸는 비전 세대들과 함께 '다시 새롭게: ReNew All'이란 주제로 복음통일을 구체적으로 그려갈 예정이다.

'통일비전캠프'는 2008년부터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자 시작된 모임이다. 처음에는 부흥한국에서 중보기도 사역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점차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의 연합 사역으로 확대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연초마다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번 2025 통일비전캠프에도 통일 및 북한선교 사역을 하는 전문가들과 실제 현장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 영역과 현장 사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눌 예정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선교적 사명을 갖고 '통일선교사'로 세우며, 특히 통일 세대의 당사자가 될 많은 청년 세대들이 합류하여 영적 유산이 계승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있다.

강사로는 김동춘 목사(기획위원장, 서울제일교회),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주도홍 목사(전 백석대 교수), 김명선 대표(한국예수전도단) 등 한국교회 안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비롯해 전문사역자들이 오전 강의 및 저녁 메시지를 전한다. 전문 사역자로는 정진호 교수(전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 피터 양 선교사(YWAM-AIIM 대표), 전 국제YWCA 한미미 부회장, 제이미 킴 대표(레아인터내셔널) 등이 함께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통일비전캠프를 섬기고 있는 부흥한국과 함께,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유니블하트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섬긴다. 캠프 일정 이후에는 DMZ 탐방도 예정돼 있다.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을 향하는 모든 길목이 막힌 시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통일을 준비하게 하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민족을 위해 기도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 덕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준비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황덕영 목사는 강조했다. 황 목사는 북한선교와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을 국외에도 심어두고 일하셨다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계신다"고 증언했다.

지난 10월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에서 진행한 통일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의 절반 가량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통일비전캠프는 이러한 현실 속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자리를 통해 통일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함께 꿈꿀 수 있는 발돋움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

11월 29일 새중앙교회 조이홀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예수전도단 선교본부장 김현철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간담회에서 캠프 기획위원장인 김동춘 목사(서울제일교회),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고형원 목사(부흥한국)가 자리해 모임의 취지와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캠프 기획위원장 김동춘 목사는 "코로나 3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는 '리뉴 올'(Renew all),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임한다"면서, "세 가지 방향의 연합을 이룬다. 장담하건대, 이 캠프는 보수와 진보가 연합해서 모이는 모임이다. 특별한 주도 세력이 없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야 북한을 품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행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 연합의 의미이다"고 강조했다.

통일비전캠프는 개최지인 새중앙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곳곳과 해외까지 통일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백선영 기자

또한 김 목사는 "두 번째는 '청년'이다. 청년을 깨워야 한다는 비전이 있다. 북한을 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선교단체와 연합해서 하려고 한다. YWAM, CCC, SFC 등이다. 이번에는 YWAM이 주관한다"고 했다. 또 "세 번째는 '교회'이다. 지역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자리"라면서, "한반도 상황이 얼어붙어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한반도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얼어붙은 한반도의 상황을 녹여주시길 기도하며, 우리의 하모니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소로 섬기는 황덕영 목사는 "다가올 2025년을 준비하며 캠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지금까지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말씀 주셨고 너무 큰 감격을 주셨다. 그간의 캠프들이 다 기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통일의 장을 넘기신다는 확신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 목사는 "통일을 위한 선교사, 통일의 일꾼들은 이미 다 교회 안에 있다. 민족적인 부르심, 시대적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고 수많은 인적자원이 교회에 잠들어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스겔 37장을 언급했다. '두 막대기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예언을 통해서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금 하나로 통일되어 연합하게 될 것을 선포한 내용이다. 황 목사는 "물리적인 개최지는 이곳이지만 지역교회 한 곳의 의미가 아닌, 한국교회를 함께 품고 연결하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란 말이 있다. 지금 당장은 물이 안 들어올 것처럼 보이지만 노를 저을 준비가 돼야 한다"면서, "'복음통일'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뤄진 것처럼 교회가 준비를 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가 한마음 한 뜻이 돼야 한다. 모든 교회가 통일비전캠프를 해야 한다"고 한국교회의 동참을 요청했다.

지난 통일비전캠프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안아주며 기도하고 있다. ©통일비전캠프

또한 황 목사는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을 언급하면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반드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화해를 이루고 통일을 이뤄서 한반도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캠프가 지금까지 열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통일에 청사진이 있으시다.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기치 못한 때 열리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 캠프가 '트리거'가 되어서, 도미노처럼 지역 곳곳과 해외까지 통일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기회가 되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오랜 시간 통일비전캠프와 동역하고 있는 부흥한국 고형원 대표는 "캠프에는 한국교회 성도뿐 아니라 탈북민, 디아스포라, 외국인까지 크게 네 종류의 참가자들이 온다. 이 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신비'가 일어난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한반도의 이슈가 단순히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고자 하는 비전 안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성숙케 되고, 하나의 꿈을 갖게 되는 '신비'를 누린다. 18회차를 맞으며 느끼는 것은 이것이 '아름다운 연합 사역의 장'이라는 것이다. 참여단체마다 각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통일을 연습하는 장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고 대표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짐을 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분단된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치유와 화해의 사명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적대와 전쟁으로 깊게 패인 이 상처를 치유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심이 절대 못하지 않다. 그들은 총과 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이다. 그런 북한의 그리스도인을 만나 남북이 함께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때 남녘이 정화될 것이다"며,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규명하는 인간관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정 깨달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한 인간으로서 가장 기쁘고 충만한 인생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황덕영 목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몽골, 러시아, 남미 등이다. 브라질만 해도 파송선교사가 3만 5천 명이 넘어간다. K-컬쳐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이끄실 것이란 믿음이 있다. 우리끼리 하는 모임이 아니라, 국적이나, 분야, 영역, 세대 가리지 않고 다 함께 해야 한다"고 맺었다.

한편 참여단체는 고신통일선교원, 지코리아(G-Korea), 뉴코리아(New-Korea), 부흥한국, 비전유니피케이션, 생명평화길벗, 서울제일교회, 유니블하트,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통일선교전략협의회, 평화한국, 한국복음주의협의회, GLC(God Loving Children), PN4N, YWAM-AIIM(시애틀 안디옥선교훈련원) 등이다. 백선영 기자

JMS 교주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또 기소

검찰, 피해자 8명 조사 통해 총 28회 성폭력 확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79)가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따라 정명석이 연루된 여신도 성범죄 사건은 총 세 건으로 늘어났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정명석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29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명석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JMS 교단 내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리는 여신도 8명을 상대로 총 28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신앙스타'란 미혼의 JMS 신도를 뜻하며, 이 중 외모가 뛰어난 여신도들이 주로 정명석의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석은 현재까지 여신도 성범죄와 관련해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번 추가 기소로 그의 성범죄 관련 형사재판은 세 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가 기소는 정명석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외에도 새로운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사건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 호주 국적의 에이미 씨, 그리고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사건은 JMS 간부들과 함께 저지른 여신도 2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건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인해 정명석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정명석은 과거에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출소 이후에도 유사한 성범죄를 반복해 재차 법정에 서게 됐다. 박용국 기자

2025 선교한국, '세상의 희망 예수' 주제로 » 7면

"찬양 인도 전후, 예배 때 회중석에 앉는 이유" » 22면

하나뿐인 자리! 한번뿐인 기회! 올림픽공원을 당신 앞에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성내천
강동대로
올림픽공원
※본 홍보물의 CG 및 이미지 컷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PREMIUM 6
숲세권의 힐링라이프
초고속 멀티교통망
비규제 입지조건
SI팰리스만의 특화설계
다채로운 생활인프라
완벽한 입주환경
문의: 02)486-4388
•시행 : (주)성우파트너스 •신탁 : 교보자산신탁(주) •시공 : 에스테크건설(주), (주)이엔건설

“경찰서 열 곳보다 교회 하나를” 기독 독립운동가 특별 전시

독립기념관 주최로 오는 12월 20일부터 KCF… 29일 출정식

독립기념관(관장 김형석) 주최로 KCF(Korea Chrismas Festival)가 오는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열린다. KCF는 독립기념관이 강연회와 전시회 등을 통해 독립운동과 기독교와의 연관성을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다. KCF 출정식이 최근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다. 조직위원장은 오정호 목사(대세충기연 대표회장), 상임고문은 김삼환, 이영훈, 오정현 목사 등 33인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내년 광복 80주년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입국 140주년을 기념해 기독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강연과 전시회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며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독교를 시작으로, 3월엔 카톨릭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 서거일을 맞아 카톨릭, 5월엔 초파일 맞아 불교, 10월엔 개천절 맞아 천도교 등 각 종교계 인사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재조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1부 예배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눅2:8-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오정호 목사(조직위원장, 대세충기연 대표회장)는 “일본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방을 얻었다. 독립은 박탈당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안창호, 이상재, 손정도 등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는 독립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역사는 기록되고 후세대로 알려져야 한다. KCF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2부 출정식에서 KCF에 대한 ‘환영인사 및 취지설명’을 전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한국교회의 가장 극적인 사건은 1902~1904년 한성감옥에서 105인 사건으로 수감 됐던 이승만, 이상재 등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라며 “1902년 조선 땅에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갔다. 한성감옥에 수감 됐던 청년 이승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죽어가던 죄수 300여 명에 물을 가져다주고 손을 붙잡으며 기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던 수감자들이 집단으로 예수를 믿었다”며 “서양 선교사들은 한성감옥에서 도서관을 개설했고, 죄수들이 책을 빌려 공부했다. 책은 성경, 천로역정 등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정치·경제 서적들이 구비돼 있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한성감옥에서 이상재, 이원긍, 유성준, 홍재기, 안국선, 김정식, 이준, 신흥우, 양의종, 박용만, 정순만, 이승인, 유동근 등 다수 독립운동가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지만 이런 역사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승만, 김구, 김규식, 안창호 등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음세대들이 안다면 인생관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설교하는 오정호 목사.

인사말을 전한 김형석 관장.

김형석 관장에 따르면, 1945년 11월 조선기독교남부대회 주최로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요인환영대회에서 김구는 ‘경찰서 열 곳을 세우기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자. 강한 나라는 성서 위에 세워야 한다’, 김규식은 ’침략받지 않는 강국을 세우려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이승만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할 때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고 역설했다.

김 관장은 “이들은 모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나 이승만과 김구를 따르는 후배들은 진영으로 갈려 서로 싸운다”며 “이승만의 위대함을 따른다고 왜 김구를 밟아야 하는가. 김구의 위대함을 쫓는다는 이유로 왜 이승만을 비판해야 하는가. 두 분의 위대함을 우리는 계승해야 한다”고 했다.

김 관장은 “다음세대들이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독교 신앙의 자긍심을 가져,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꿈꾸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와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KCF 조직위는 이날 발표한 출정식 선언문에서 “광복 80년과 한국선교 140년, 그 질곡의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은 굳건했다.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소망으로,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불굴의 용기와 의지로 초일류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런 중에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갈등과 분쟁으로 분열된 국론”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성탄절, 그리고 광복 80년, 한국선교 14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꿈꾼다. 절대위기로 신음하고 탄신하는 지구촌과 한반도에 생명의 빛을 밝힐 기회의 때가 지금”이라며 “이제 우리는 한민족의 늠름한 기상으로 동방의 등불이 되어 절대절망을 절대소망으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KCF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노형구 기자

노형구 기자

“개혁교회, 다문화사회서 ‘오직 성경’ 기초해 예수 사랑 실천을”

개혁신학포럼, ‘개혁교회와 다문화사회’ 주제 정기세미나 개최

개혁신학포럼 제25차 정기세미나가 11월 30일 서울은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 김진영 기자

개혁신학포럼이 11월 30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은혜교회에서 ‘개혁교회와 다문화사회’라는 주제로 제25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다문화사회에서 개혁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업은?

이날 총 세 번의 발제가 이뤄진 가운데, 먼저 최더함 교수(마스터스세미너리 책임교수, 개혁신학포럼 학술고문)가 ‘다문화사회와 개혁교회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인구가 약 2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개혁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강연했다.

최 교수는 다문화사회에서 개혁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업에 대해 △개혁교회 체질 강화 △교리교육 강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방식 정비 및 강화 △‘다문화사회위원회’ 구성 등 다문화 정책 개발을 꼽았다.

최 교수는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다변화적이고 열악하다 해도 위축되거나 소극적이거나 이기적인 자세와 태도로 후퇴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며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가지고 다문화사회에서 여러 갈등 요인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소중히 간직하고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교회이다. 개혁교회는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교회”라며 “그러나 개혁교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며 모든 교회를 선도하는 교회”라고 했다.

최 교수는 “다문화사회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개혁교회를 통한 진리와 생명의 빛은 비추어져야 한다. 이 빛과 따뜻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으로 서서히 스며든 이주민들을 감싸안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들을 섬기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 영생 복락의 길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디아스포라적”

이어 손승호 선교사(울산경남 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UNIST(울산과학기술원) 유학생 사역)가 ‘이주민 선교의 성경적 근거와 분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연에 나섰다. 손 선교사는 “성경은 본질적으로 디아스포라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끊임없이 이동하셨던 분”이라며 “기독교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 본질적으로 선교 신앙”이라고 했다.

손 선교사는 특히 칼빈 역시 난민목회를 했었다며 “제네바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선호도 1위에 속했다. 이것은 칼빈의 성경적 목회와 관련된다. 칼빈은 난민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을 제공하여 제네바 시 전체가 기독교 정신에 맞게 재편성 되고 사람들의 삶도 변화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도록 기여했다”고 했다.

그는 “칼빈은 구원받은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이며 사회적,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이웃으로서의 상호책임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고 했다.

손 선교사는 “선교 참여는 더 이상 재정 자원, 고급 훈련, 파송 구조, 교회 소속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누구나 어디서나 다른 지역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일하면서 언제든지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구와 플랫폼을 통해 가상으로 할 수 있다”며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소셜 미디어, 자동화 등의 신기술 개발은 메타버스 선교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선교 파송 국가들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고, 과거의 선교지 출신 이민자들이 호스트 국가의 동료 이민자들과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모든 기독교인은 이 현실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땅 끝에서 우리 곁으로 찾아온 이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앞으로 10년)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주자 선교, 피할 수 없는 선교적 과제”

마지막 강사로 나선 김은홍 교수(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 선교학)는 ‘다문화 선교의 성경적 근거와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 사례를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 그 성경적 배경을 고찰한 김 교수는, 결론에서 이주민 선교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전략은 △교회 밖의 장소 △필요에 따른 공급 △삶의 공유 △팀 사역 △전문가 양성 △이주자 교회의 자립 △ 세계선교와의 네트워킹 △ 각 교단 차원에서 거시적 대안 제시를 들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는 교단별로 이미 수백 여개 이상의 교회와 단체가 이주자 선교를 하고 있으며, 매년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다. 각 교단 총회 산하 상임위원회를 따로 편성해 교단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루어야 한다”며 “교단에서는 각 지역 노회별 배치를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이주자 사역을 위한 네트워크를 하고, 노회 차원에서 이주자를 위한 사역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토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국내 이주자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든 안 하든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사역자들과 사역 교회나 단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단은 이에 대한 빠른 대비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외국인을 비롯해 이주자 선교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선교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주민들을 단순히 선교의 대상으로만 규정해 복음을 미끼삼아 접촉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을 둘러싼 환경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각 사람마다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종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선교라는 미명하에 유행처럼 대책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갔을 때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독일, 일본, 미국, 싱가폴, 홍콩,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다”며 “이미 진행된 다문화사회를 수용한 한국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하며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발제 후 강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좌담회도 진행됐다. 발제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는 이희수 목사의 사회로 공성권 목사가 기도했으며, 박상경 목사가 설교한 후 이재현 목사가 축도했다.

김진영 기자

“10·27 말고는 선택의 여지 없었다… 이 싸움, 포기하는 쪽이 져”

[인터뷰] 10·27 연합예배 설교자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

제자광성교회 담임 박한수 목사. 그는 “이제 10.27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을 하고, 우리는 또 다시 연합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주최 측 추산 110만 명의 성도가 현장에 모였던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고작 2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준비된 집회였지만,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졌다. 1973년 빌리 그래함 집회 이후 한국교회 최대 규모 집회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 달여 지나 마주한, 당시 설교자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에게서 그로 인한 흥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그에게도 10.27 연합예배는 큰 이정표지만, 마침표는 아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그와 2024년 10월 27일,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래는 일문일답.

–10.27 연합예배에서 어떻게 설교하게 되었나?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조직위 측에서 내게 요청한 것이다. 애초부터 설교나 다른 순서를 맡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단지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마중물 한 바가지라고 되자’ 그런 마음뿐이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설교 준비에 부담은 없었나?

“왜 없었겠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지 않게 고생했다. 우선 설교를 짧게 해야 했다. 그 안에 전달할 내용을 정확히 담아야 했기에 쉽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분들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는 중압감이 컸다.”

–10.27 연합예배가 무사히 끝났다. 돌아보면 어떤가?

“100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 걱정했다. 그만큼 안 모이면, 한국교회 꼴이 우습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혹시 사고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럼 한국교회에 더 큰 위기가 올 텐데’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집회를 해야 했던 이유는, 지금이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10년 전 이런 집회가 준비되었다면, 나는 참석을 안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제시대 당시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것도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친다고 당장 독립이 이뤄지겠나?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흔들었던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심정으로 10.27 연합예배에 참여했다.

10.27 연합예배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기 위한 한국교회 저항의 목소리였다. 이것이 일순간 모든 것을 바꾸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3.1운동이 있은 후 26년이 지나 마침내 해방을 맞았듯,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훗날 10월 27일은 우리 사회의 물줄기를 바꾼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아쉬운 점이나 후회 같은 건 없나?

“후회는 없다. 그렇다고 뿌듯함이나 성취감 같은 것도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겨를이 없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27 연합예배는 단지 하나의 방어막을 세운 것이다.”

–10.27 연합예배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교계 내부에서 나왔다.

“교계 밖에서의 비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 아마 그런 그들의 신념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대립구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뿐이다.

또한 그들의 반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너무 모른다. 그 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거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이다. 서구교회가 차별금지법 하나로 인해 무너진 건 아니겠지만, 그 법이 결정타가 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걸 봤으면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신앙의 색채나 이념을 떠나 기독교계 전체가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스스로 빗장을 열어주려고 하나? 참 안타깝다.”

–10.27 연합예배 현장에 주최 측 추산 110만 명이 모였다.

“규모와 숫자보다 내용과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정도로 많은 이들이 같은 우려를 가지고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합예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숨겨진 그리스도인, 곧 ‘샤이(shy)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걸 느꼈다. 그 중에는 청년들도 꽤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10.27 연합예배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참석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점이다. 솔직히 대부분의 집회에서 인원은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집회에선, 참석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비용을 내고 버스를 대절해 서울까지 올라왔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모였다고 생각하나?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 아니겠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컸을 것이다.”

–비기독교인들은 10.27 연합예배를 어떻게 지켜봤을까?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었을 것이다. 첫째는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 그들에겐 백만이 모이든 천만이 모이든 별 상관이 없다.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 특히 언론이 이를 부추겼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언론은 편향돼 있다. 그들은 10.27 연합예배를 단지 축소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모였는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정상적이라면 집회가 열린 이유를 다뤄야 한다. 10명도 아니고 100만이나 모였는데….

그리고 마지막 반응은, 10.27 연합예배에 대한 관심이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뭔가 있기 때문 아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관심을 가진 이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것에 의문을 가졌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10.27 연합예배가 없었다면 그런 단어조차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목사님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대사회적 이슈에 늘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내겐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가 있다.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과 복음화다. 그런데 이를 위한 중간 목표로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을 막는 것이 있다. 나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단 문제, 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모두 중간 장애물이라고 본다. 이런 것을 막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다.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가령 건물을 짓는데, 바닥을 팠더니 바위가 나왔다고 하자. 그럼 그 바위를 깰 것이다. 그것만 보면 마치 바위를 깨는 것이 최종 목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집을 짓기 위해 하는 행동일 뿐이다. 나 역시 한국교회와 신앙의 후대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목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없나?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에 다 못 쏟고 있는 건 사실이다.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그냥 목회만 했으면 받지 않았을 오해도 받는다. 하지만 유익도 있다. 성도들이 시대 현상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기 신앙 안에 머물러 있던 신앙의 범주가 더 넓어졌다고 감사해하는 분들도 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행동할 건가?

“방해물이 있으면 치우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아야 한다. 다만 우려하는 건, 우리의 이 운동이 우리 세대에서 끊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이를 이어가야 한다. 이 싸움은 포기하고 지치는 쪽이 지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10.27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을 하고, 우리는 또 다시 연합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 거대한 장애물과 위협 앞에서 힘을 합해 맞서야 한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교회밖에 없다.” 김진영 기자

10.27 연합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박한수 목사. ©10.27 연합예배 조직위

◈박한수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와 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고, 2006년 경기도 고양시에 제자광성교회를 개척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산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예장 통합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희귀병 딸 위해 걷고 또 걸었다… 22일간의 국토대장정 마친 아버지

전요셉 씨, 880km 여정 마무리… 후원금 13억7천만 원 모금

전요셉씨와 아내 이상아씨, 딸 사랑양. ⓒ 전요셉

희귀병에 걸린 세 살배기 딸을 살리기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선 아버지 전요셉(33) 씨의 눈물겨운 여정이 29일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5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출발한 그는 22일간 하루 평균 40km를 걸으며 880km를 완주,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다.

전 씨는 충북 청주의 시골 교회 목사로, 딸 사랑(3) 양이 신경계 근육 희귀질환인 ‘듀센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모금하고자 이번 대장정을 시작했다.

듀센근이영양증은 근육이 점점 퇴화하는 병으로, 10세 전후로 보행 능력을 상실하고 20대에는 자가호흡이 힘들어지며 대부분 30대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희귀병이다. 치료제는 미국에서만 승인됐으며, 치료비가 무려 46억 원에 달한다.

그는 부산을 출발해 경남 양산, 울산, 대구, 경북 김천, 충북 영동과 대전을 거쳐 고향 청주에 도착한 뒤, 가족과 시간을 보낸 후 충남 천안, 경기 오산과 성남을 지나 서울까지 걸었다. 여정 내내 그는 번화가를 돌며 딸의 사연을 알렸고, 지역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며 후원 챌린지를 홍보했다.

전 씨는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모든 분들의 응원이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착한 전요셉씨. ⓒ전요셉

이날까지 모금된 후원금은 13억7000만 원에 달하지만, 목표액인 46억 원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국토대장정은 끝났지만, 후원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을 통해 이어질 예정이다.

전 씨는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과 자료를 모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맡기기로 했으며, 모금회는 12월부터 본격적인 모금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는 듀센근이영양증 치료제가 없어 대부분의 환자가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씨는 치료제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국토대장정을 결심했으며, 이번 여정이 딸의 치료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나래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AEKYUNG

“한미 기독교의 신앙동맹, 한미동맹 70주년의 바탕”

샬롬나비, ‘한미동맹 70주년과 한국 기독교’ 주제 학술대회 개최

샬롬나비 제29회 학술대회 참석자 단체 사진. ©샬롬나비

샬롬나비 제29회 학술대회 진행 사진. ©샬롬나비

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최근 서울 온누리교회 횃불회관 화평홀에서 ‘한미동맹 70주년과 한국 기독교’라는 주제로 제2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한미동맹

이날 기조강연에선 김영한 박사가 ‘이승만의 기독교 정신과 건국,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박사는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물론 1919년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1875~1965)을 무려 464번째에야 정부가 독립운동가로 공식 선정했다”며 “이는 사회주의를 동경하여 대한민국의 탄생을 아쉬워하는 이념 편향적인 운동가들이 그동안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여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심어놓았는지 잘 드러나는 단면”이라고 했다.

이어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전쟁은 분명 비극적인 국가적 재앙이었다. 그 재앙은 뜻밖의 축복을 안겨다 주었다.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다.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라며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과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을 가져다주었다. 1954년 11월 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의 마지막 단계였던 비준서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조약 체결을 주도한 자가 바로 이승만이었다. 오늘날 70년간 한미동맹이 있게 한 것은 이승만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세 청년 때부터 1945년 해방을 맞는 7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꼬박 반세기 동안 이승만이 이루어 낸 국민 계몽과 독립역량 강화, 그리고 실력양성과 독립외교의 위대한 독립운동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방대하고 전 방위적이며 치밀하고 정교하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은 하와이 기독교회의 지도자였고 대통령이 된 후, 정동 감리교 교인이었고, 감리교의 분위기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승만이 미국 유학 시절에는 오히려 장로교의 칼빈주의 사상체계로 그의 사상이 정립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기독교 정치 이론을 가슴에 새기고, 조선이 독립이 되면 ‘기독교 입국’을 세울 것이라고 마음에 다짐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제헌국회시 이윤영 의원(목사)에게 기도하게 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기도로 세워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이승만보다 뛰어난 애국정신, 독립 운동 경력, 학력, 외교적 식견,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자가 없다”며 “국제사회에서 시대를 앞섰던 이승만 대통령의 별명은 ‘독립에 미친 늙은이’에서 ‘예언자’로 바뀌었고, 그의 앞선 각종 정책과 외교는 그가 세우고 봉사한 자유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는 ‘기적의 나라’로 불리게 된 초석이 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감리교 장로요 일평생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이승만을 탁월한 독립운동가요 국가의 건국 지도자로 모셔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추대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그가 말년에 경륜이 부족한 측근들의 권력욕으로 인해 독재의 비난을 받고 물러난 불행한 행적까지 미화 없이 남겨준 모습 그대로 후대에 교훈을 받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한미동맹이 지난 70주년 변함없이 발전해온 바탕에는 한국기독교인과 미국기독교인들 사이의 신앙동맹이 있었다”며 “오늘날 한국기독교 선교와 부흥에는 미국 선교사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오늘날 중국의 시진핑의 일인체제, 푸틴의 장기 일인체제, 김정은의 3대 세습 핵개발모험주의에 대항해 한국교회는 美교회와 신앙적 교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가치동맹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승만의 평가는 대한민국 현대사 정치인으로서 그의 말년의 장기집권과 관련된 독재, 부정선거 실책 아래 그의 투철한 애국심, 독립운동, 대한민국 건국, 공산침략 격퇴, 한미동맹, 시장경제의 업적들이 묻혀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를 우리 역사의 바른 위치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에 건국 대통령 조지 위싱턴처럼 이승만은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일에 그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공헌을 한 인물”이라며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요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가꿈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를 놓은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순서에선 ▲김명섭 박사(연세대)가 ‘한미동맹의 세계사적 의미’ ▲이춘근 박사(국제정치학)가 ‘한미동맹의 의의와 미래’ ▲이은선 박사(백석대)가 ‘한미동맹과 한국기독교’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한미동맹, 대한민국의 큰 흐름 함께 했던 동맹

김명섭 박사는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오랜 문명사적 배경을 지닌 것이었다”며 “그것은 한반도 인접 문명들의 팽창과 충돌 속에서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잉태되기 시작하여 일제의 대한제국 병합 이후 반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시기를 거쳐 6.25전쟁 시기 흘린 양국 국민들의 피로써 봉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의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라는 큰 흐름을 함께 했던 동맹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공산진영에서는 한국이 쓰고 있는 안보의 갓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갓 끈들 중 하나인 한일관계만 끊어내면 나머지 하나인 한미관계도 끊을 수 있다는 갓끈 전술을 구사해왔다”며 “사실 이것은 한일관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군의 신속한 파병은 당시 이 지역의 안보가 도쿄의 맥아더 장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SCAP(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連合国軍最高司令部)의 관할 하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는 이승만이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에 파견되기 앞서 고종에 의해 한성감옥서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깊은 영향을 받았던 진실에 기초한 용서와 화해의 모럴이 한일관계에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것이 제2기 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에 필요한 새로운 정치적 모럴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미동맹, 평화통일의 관건

두 번째로 발제한 이춘근 박사는 “오랜 세월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며 “2024년도 저물어가는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은 망해가는 북한을 한국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즉, 한미동맹은 북한의 단말마적인 발악, 예상할 수 없는 도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은 본질적으로 국제정치 문제다. 과거 한국 정부들이 국제문제인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곤 했다”며 “현 정부의 ‘자유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대북한 통일정책은 본질적으로 자유 진영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는 것이다. 이 같은 민족적 대 과업에 한미동맹이야말로 특별히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미국 기독교인들과 교류 통해 한미동맹 공고히 해야

마지막 세 번째로 발제한 이은선 박사는 “이승만은 1951년 미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하려고 시도할 때부터, 가장 시급한 문제로 한국의 안보를 담보할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체결을 원하였다”며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조약에 소극적이었고, 전쟁 후에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약소국 대통령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확실성, 공헌, 취약성 등을 지적하는 저항전략을 사용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한 저항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북진통일론과 반공포로 석방이었으며, 이 전략을 통해 상호방위조약과 더 나아가 한미합의의사록을 작성하여 1954년 11월에 한미동맹을 출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한미동맹이 출범하는데 기여하였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수호하는 데는 한국과 미국 기독교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이 있었다”며 “특히 해방 이후 밥 피어스와 빌리 그래함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자들의 6.25전쟁 기간 동안 월드 비전을 통한 후원활동과 복음전파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덜레스는 한국 방문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파악하고 6.25전쟁 직후 한국을 지원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하였다”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1951년 6~7월 휴전협정 체결을 시작할 때에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휴전협정 반대 정책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1953년 6월에 휴전협정이 재개되었을 때,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며 “그리고 이 기간에 포로들에 대한 복음전파에 전념하여 16,000명이 넘는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이들은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의 핵심이 되었다. 이 때 이승만은 휴전협정을 반대하는 기독교들과 함께 국민의 지지 시위를 힘입으면서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하면서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결국 성공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기독교인들의 지원 속에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이 그동안 한국 발전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미국 기독교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행사는 이후 김영선 박사(협성대 명예교수)·이갑헌 박사(세움어린이교회선교원 대표)·김중석 목사(사랑교회 원로, 북한교회세우기연합 사무총장)의 논평, 종합토론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장요한 기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S대, 기부 강요 논란 확산

40일 특별기도회 중 기부 프로젝트 참여 압박 의혹 제기

S대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장 일가의 교비 횡령,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과다청구에 이어 이번에는 구성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일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S대는 최근 진행한 ‘40일 특별기도회’에서 해외 어린이를 돕는 기부 프로젝트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S대는 지난 8주간 매일 오전 7시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 세계 평화와 전쟁 중단을 기원하는 예배를 진행했으며, 여기에 50~70명의 교수와 직원들이 참석했다.

논란은 예배 기간 중 학교가 한 국제구호단체와 협력해 추진한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 기부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참여자는 선물 상자와 함께 2만 원의 배송비를 기부해야 한다. 현금 기부도 가능했으며, 학교 측은 목표 개수를 1,000개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학교 측이 참석자들에게 선물 상자 제작과 기부를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 익명의 교직원이 보낸 메시지에서는 “예배 참석자들에게 10개씩 책임지라는 분위기가 느껴졌다”는 불만이 드러났으며, “기부는 자발적이어야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요구하는 방식은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S대 관계자는 “기부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성이 아닌 강제성이 느껴지는 방식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며 “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이미 실망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기부 강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대 관계자는 강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기도와 기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강제성은 전혀 없다”며 “선물은 집에 있는 깨끗한 물건을 활용하거나, 선물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강제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다. 일부 구성원들은 학교의 본질적인 역할이 교육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장애아 낳기로 결정한 부모 마음 엿보다, 뮤지컬 「루카스」 후기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낸 명작의 재탄생
'생명', 그자체로 존엄하고 고결한 가치
우릴 바라보시는 하나님 시선과 동일
'사랑'은 장애 유무·배경·조건과 무관
천방지축 주인공 변화과정, 관람 포인트

만약 당신에 뱃속의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뱃속 아이가 다운증후군임을 알면서도 낳은 엄마가 있다. 잔드라 슐츠의 책 〈엄마는 너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어〉를 보면 '모두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지만 딸 마르야를 낳았다. 그녀는 대단하고 거창한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고백한다.

비슷한 일이 2001년 캐나다 토론토의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 데이브레이크'에서도 있었다. 이 공동체는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웬이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체에 있던 장애인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고, 뱃속 아기는 두개골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뇌가 밖으로 빠져 나오는 뇌막류를 진단 받은 상태였다. 의사는 아이의 선천적 결함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이라고 임신중절을 권유하지만, 부부는 아기에게 '루카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기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17일간 생존하여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을 남겼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루카스」는 2006년 초연작으로 18년째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명작에는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 실화 바탕에 깊은 주제의식이 담긴 감동적인 대본, 감각적인 노래와 가사, 그리고 배우들의 명연기까지 세 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유쾌하고 다채롭게 풀어하며 과연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랑'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극중 가상의 인물 '현우'는 극중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등 소위 '폐급'으로 묘사된다. '아빠가 돼서 아이 이름도 쓰지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아이 아빠에게 면박을 주는 천방지축 현우가 점차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백미이다. 현우는 15분 밖에 볼 수 없는 아기를 열달 간 품으며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에 점차 감화되어 간다. 이런 현우가 변화하기까지 기다려주는 인자한 대장 할머니 '수잔'의 모습도 인상 깊다. 또한 현우가 한국으로 귀국하며 아버지를 만나는 마지막 씬에서는 꽤나 큰 반전이 있어 또다른 감동을 준다.

극중 공동체의 축복 속에 목사를 통해

창작 뮤지컬 「루카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15분 밖에 볼 수 없는 아기를 열 달 간 품으며 사랑으로 기다리는 장애인 부부의 모습, 그리고 이를 바라보며 변화되어 가는 가상의 인물, 현우의 모습이 백미이다. ©문화감각

루카스가 유아 세례를 받는 모습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가슴 찡한 장면이다. 수어를 활용한 경이로운 안무도 눈에 띈다. 요즘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인 코드가 대세가 되어가는 문화예술계에 인간의 존엄과 고결한 사랑이란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흔치 않다. 순수성에 목말라 있던 관객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출·음악·무대·영상·안무 모두 리뉴얼

이 작품은 창작 뮤지컬 「더 플레이」로 제8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을 수상한 김수경 작가의 작품이다. 올해는 연출과 음악, 무대, 영상, 안무가 전부 바뀌었다. 1년 반 전부터 모인 창작진은 초연의 장점은 살리되 극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한 극적 장치와 새로운 장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음악을 완전히 새롭게 편곡하고 새 넘버도 만들었다. 다수의 드라마 OST를 작곡한 김종천이 맡은 것이다.

작품은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발랄하고 세련되게 풀어내어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고 있다. 남녀노소, 특히 연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가족 단위로 보기 좋은 작품으로 추천하고 싶다.

한편 뮤지컬 루카스는 서울 압구정 광야아트센터에서 내년 5월 17일까지 공연된다. 12월 21일까지 수험생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특히 총 티켓 매출의 1%를 밀알복지재단에 기부되어 장애 영유아 치료비를 지원한다.

백선영 기자

극동방송·선한청지기, 꿀벌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봉사'

연탄 2만 장과 쌀 150포,
화장품 등 선물 전달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협력기관인 NGO 선한청지기와 극동방송 운영위원회가 지난 26일, 과천 꿀벌마을을 찾아 연탄과 쌀, 성탄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연탄봉사'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선한청지기 이사장 이일철 장로, 대표 김요한 목사,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연탄과 쌀을 날랐다. 이들은 꿀벌마을 주민들에게 연탄 2만 장과 쌀 150포(750kg), 그리고 화장품 등을 전달했다.

직접 연탄과 쌀을 나른 선한청지기 대표 김요한 목사〈사진〉는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오히려 제가 감사드린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모두가 따뜻한 성탄을 보내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꿀벌마을은 화원과 거주용 비닐하우스가 혼재된 지역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가건물에서 도시가스 없이 난방유와 연탄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주민등록상 약 450여 가구, 700여 명이 거주하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꿀벌마을 조도원 통장(과천동 7통)은 "하나님께서 극동방송과 선한청지기를 통해 우리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주셨다. 폭설 속에서도 이 외진 곳까지 찾아와 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선한청지기 이사장 이일철 장로는 "폭설로 더욱 얼어붙은 꿀벌마을에 오늘 우리는 연탄 한 장 한 장에 작은 사랑을 담아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모여 꿀벌마을 전체가 사랑의 온기로 가득 덮이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극동방송은 올겨울에도 지속적으로 미자립교회와 무료급식소에 4,400kg의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극동방송 협력기관인 NGO 선한청지기와 극동방송 운영위원회가 최근 과천 꿀벌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봉사를 진행했다. ©극동방송

"다음 세대 교육, 프로그램 아닌 예배에서 시작"

파주운정참존교회
국제성경기독학교(IBMS),
'기독교브랜드 대상' 교육 부문 수상

고병찬 목사(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와 IBMS 학생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MS

파주운정참존교회(담임 고병찬 목사)가 운영하는 국제성경기독학교(International Bible Mission School, IBMS)가 최근 '2024 기독교브랜드 대상' 교육 부문에서 수상했다.

2022년 설립된 IBMS는 교회와 멀어지며 세속화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학생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세상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길러내기 위한 기독교 학교다.

고병찬 목사는 2022년 6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IBMS를 세웠다. 교육철학은 ▲오직 예수만 따르는 신앙 ▲올바른 생각과 마음 ▲올바른 인간성 ▲우리 민족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등 5가지다.

기숙학교로 운영되는 IBMS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다. 홍행전 사모는 "IBMS에서 학생들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세 번 식사 때마다 기도회를 꼭 갖는다"며 "그것은 학생 개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BMS는 또한 '자기 주도 학습'을 지향한다. 홍세은 학생은 "일반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 일반 학교를 다닐 때 나는 나 자신을 포장하며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애를 썼다"며 "IBMS에서 예배를 드리며 내 안의 악한 '쓴 뿌리'가 있음을 발견했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지난 3월 고2 아들과 이 학교를 찾았다"면서 "한때는 '내 아이들이 차라리 옆집 아이였으면 인사라도 할 텐데' 할 정도로 서로 관계가 안 좋았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고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계획이 IBMS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비전이 생기니 자기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장차 무슨 일을 할지 스스로 그림을 그려가더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고, 감사의 고백이 늘었다"고 말했다.

고병찬 목사는 "IBMS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사회인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날마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점검하며 능동적으로 공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다음 세대 교육은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배를 바로 세워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신앙을 먼저 회복시켜주고, 그로 인해 인격이 변하면 아이들의 삶은 저절로 바뀌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이 개개인의 전문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면 그 이후에 쌓이게 된다"며 "미래 대한민국을 살리는 성경 속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이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트럼프, 데이브 웰던 전 의원을 CDC 차기 국장으로 지명

친생명운동 지지자들, 케네디 주니어 장관 지명 우려 속 웰던 지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으로 데이브 웰던 전 의원〈사진〉을 지명했다. 웰던은 1995~2009년 하원의원으로 활동한 후, 친생명운동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22일 트럼프 당선인이 웰던을 CDC 국장에 지명한 소식을 전하며, 웰던 지명자가 '40년 경력의 의사이자 보수적인 지도자'로서 미국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웰던에 대해 "CDC가 미국인들이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웰던이 CDC를 진정한 목적에 맞게 복원하고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웰던은 그의 정치 경력 외에도 의료 분야에서도 활동을 이어왔으며, 특히 인간 배아에 대한 특허 금지 제정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그가 제안한 '웰던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낙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연방 자금 지원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낙태를 반대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최근 몇 년간 민주당 측에서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상원에서 다시 복원됐다.

웰던의 CDC 국장 지명은 특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친생명운동 내에서 제기된 우려와 맞물려 있다. 케네디 주니어의 낙태에 대한 과거 입장과 관련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그가 임신 9개월까지 낙태를 지지했으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펜스는 "케네디 주니어가 공화당이 임명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가장 낙태를 지지하는 인물"이라며, 상원에 그의 지명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비해 웰던의 CDC 국장 지명은 친생명운동 지지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그가 CDC의 방향성을 가족 중심의 가치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CP는 웰던이 케네디 주니어보다 상원의 인준을 받는 데 더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은혜 기자

제33회 러브 엘몬테, 추수감사절 맞아 하나님 사랑 나눠

나성한미교회 지역 이웃 초청 선물·음식 대접

러브 엘몬테 행사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식사 대접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주최 측 제공

나성한미교회(담임 홍충수 목사)가 엘 몬테 시티(El Monte city)이웃 주민들을 초청해 추수감사절과 문화나눔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인 "러브 엘몬테(Love El monte)"가 33회 째를 맞았다.

나성한미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써 선교적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으로 코비드 기간에도 이 행사를 지속했다.

특별히 2024년 올해는 K-FOOD Sharing Festival 시간으로 한국의 대표 음식인 불고기, 떡볶이, 김치, 오뎅국, 오이무침 등을 준비하여 많은 분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음식 나눔과 동시에, 히스패닉 교회인 아구아 비바 교회(Agua Viva Church)에서는 스패니시로, 다민족 교회인 씨드베드교회(Seedbed Church)에서는 영어 찬양으로 교회의 찬양팀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한, 한쪽에서는 바자회가 열렸는데, 여러 옷가지와 생활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렸고,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 장난감과 페이스 페인팅으로 아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김민선 기자

노스 메트로 예술 아카데미,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귀넷카운티 공립학교(GCPS)가 노스 메트로 예술 아카데미(North Metro Academy of Performing Arts)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성대히 열었다. 행사는 지난 1일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열렸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뿐 아니라 GCPS 교육감 캘빈 J. 와츠 박사, 귀넷카운티 교육위원회 메리 케이 머피 박사, 뷰티 P. 볼드윈 박사, 클러스터 교육감 루벤 그레샴 박사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생들의 공연으로 시작해 초청 연사들의 축사와 학생 리더의 기념사로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뷰티 P. 볼드윈 박사가 설립한 이 학교는 차터스쿨로서, 학업과 공연 예술을 융합한 대안적 교육을 제공해왔다. 특히 노크로스 지역의 학생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열정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독창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

모니크 리 교장은 이번 행사에서 "우리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관심사를 반영해 학업과 예술을 통합한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창의력, 협동심을 길러주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홍은혜 기자

일론 머스크, 추수감사절 만찬서 도널드 트럼프 곁자리 차지

트럼프와 밀착 관계 부각… 신설 부서 수장으로 지명

지난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추수감사절 만찬장에서 헤드테이블에 앉은 일론 머스크(앞줄 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X

미국의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28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위치한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만찬에 참석, 트럼프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만찬장에서 머스크는 트럼프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트럼프의 왼쪽 자리에는 그의 아들 배런 트럼프가 자리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배런 옆에 앉아 있었지만, 머스크가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머스크는 만찬에서 검은색 블레이저에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엑스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머스크의 등을 툭툭 치며 분위기를 띄우자, 머스크가 두 팔을 치켜들고 트럼프의 유세곡인 'YMCA'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곡은 트럼프가 대선 유세 중 춤을 추며 화제를 모았던 곡으로, 당시 장면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바 있다.

프랑스 보석디자이너 야코프 사파르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만찬 중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이끌었다"며 "트럼프는 배런, 머스크와도 여러 주제에 대해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대선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대선 이후에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머물며 사실상 트럼프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머스크가 트럼프 가족의 일원처럼 대우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관계는 정치적 역할로도 이어지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효율성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됐다. 또한 트럼프가 대선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진행할 때도 배석하며,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은혜 기자

한인 시니어를 위한 센터메디컬 그룹의 조끼 나눔 행사 성료

미주 유일의 한인 시니어만을 위한 센터메디컬 그룹의 나눔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11월 내 총 3회에 걸쳐 오렌지카운티, 사우스베이, 그리고 엘에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조끼와 푸짐한 선물을 나누는 행사였다.

오픈 시간 전부터 행사장을 가득 메운 시니어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정성껏 준비된 선물을 손에 쥔 시니어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녹아내린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 행사는 예상시간보다 빨리 끝나며 준비된 조끼와 선물이 모두 소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행사를 주최한 센터메디컬그룹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한인 시니어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센터메디컬그룹 관계자는 "한인 시니어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노력이 의미 있음을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메디컬그룹의 조끼 나눔 행사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연말이 주는 설렘과 따스함 속에서, 이번 행사는 한인 시니어들이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자리임이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시니어 참가자는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는 곳이 있어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한인 시니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김민선 기자

‘2025 선교한국대회’ 8월 개최 “청년들에게 타문화권 선교 도전 기대”

내년 8월 4~7일 사랑의교회서 ‘세상의 희망 예수’ 주제 다뤄
제19회째 대회, 36년간 해외 한국선교사 80%에 영향 미쳐
“청년들이 나, 교회, 민족, 열방의 희망 ‘예수’ 발견하길”

맨 왼쪽부터 남새롬교회 선교담당 이승준 목사, WEC 부대표 장연식 선교사, 대회 총회 의장인 SFC 대표 허태영 간사, GMP 소속 및 TCK WAVE 대표 이훈 선교사, JOY 박선영 현장사역부 총무국장, 선교한국 사무총장 최윤 선교사. 맨 오른쪽 진행을 맡은 선교한국 본부장 박민규 목사 ⓒ이지희 기자

청년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영적각성과 타문화권 선교 헌신을 도전하는 선교한국대회가 2025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서초 사랑의교회에서 열린다.

2년마다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된 선교한국대회는 내년에 19회째를 맞는다. 1888년 미국 SVM(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100주년인 1988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36년간 총 18회 대회를 통해 연인원 6만 6천여 명이 참여하고, 그중 3만 7천여 명의 선교헌신자를 배출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합 청년선교동원집회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현재 해외 한국선교사의 80%가 직간접적으로 선교한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지난 30여 년간 단기선교와 함께 한국교회 청년 선교동원과 해외선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선교한국대회를 벤치마킹하여, 선교중국대회, 선교몽골대회, 인도 북동부 및 나갈랜드 지역의 미션나가(Mission Naga) 등이 개최됐다.

선교한국 2025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노량진 KWMA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 홍보영상 시청 후 대회 주제와 의의, 주강사 및 예배팀,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패널로는 선교한국 사무총장 최윤 선교사, 대회 총회 의장인 SFC 대표 허태영 간사, WEC 부대표 장연식 선교사, GMP 소속이자 TCK WAVE 대표 이훈 선교사, JOY 박선영 현장사역부 총무국장, 남서울교회 선교담당 이승준 목사가 참여했으며, 선교한국 본부장 박민규 목사가 진행으로 섬겼다.

◇“희망 없는 시대에 청년들이 예수 발견하길”

이번 대회의 주제는 ‘세상의 희망 예수’, 주제 성구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롬 15:12)’이다. 조직위원회는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 그 속에서 많은 청년이 희망의 담론 속에 미래를 그리지 못하고 짧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불안을 잊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희망, 교회의 희망, 민족의 희망, 열방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루터기와 남은 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세움 받을 것”으로 기대를 전했다.

대회 주 강사와 예배팀은 청년들과 호흡하고, 청년들의 언어로 선교와 복음, 영적 각성을 일깨울 수 있는 열정 있는 차세대 리더들로 선정했다. 주 강사 연령대도 주로 30~40대, 최대 50대로, 기존 대회보다 평균연령이 20살 젊어졌다.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담임목사, 다윗의 열쇠 대표 김선교 선교사,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담임목사(전 부룬디 선교사), 더 스토리(The Story) 대표 이길재 선교사, 포드처치 원유경 담임목사, WEC 사역팀 리더 주영광 선교사가 주 강사로 활동하며, 아이자야씩스티원, 팀룩워십이 예배팀으로 섬긴다.

◇‘수도권 교통 요충지’, ‘순차적 빌드업 프로그램’, ‘헌신 청년 후원 기금 마련’ 등 특징

내년 대회는 앞서 2023 선교한국대회에서 헌신한 청년들을 모아서 진행한 2024년 청년·미래·선교(청미선) 수련회 때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먼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에서 대회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사랑의교회로 장소를 정해, 학생뿐 아니라 청년 직장인들이 퇴근 후 저녁 선교부흥회에 참석하기 용이해졌다.

‘처음부터 열 단계를 뛰어넘는 심화성이 아니라 한 스텝씩 이해하기 원한다’는 요청에는 매일 프로그램을 흐름을 따라, 순차적으로 빌드업 되도록 구성했다. 4일 저녁 ‘나의 희망 예수’(김선교 선교사), 5일 오전 ‘선교사적 삶’(미셔널 세바시), 저녁 ‘교회의 희망 예수’(원유경 목사), 6일 오전 ‘선교사적 공동체’(미셔널 세바시), 저녁 ‘민족의 희망 예수’(이길재 선교사), 7일 오전 ‘희망에 동참’(주영광 선교사), ‘전방개척 선교사’(미셔널 세바시), 저녁 ‘열방의 희망 예수’(고성준 목사)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청년들끼리 나눔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매일 소그룹 시간이 진행되고, ‘선교한국을 통해 선교에 헌신한 청년들이 적절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에 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은 2025 선교한국대회를 통해 헌신한 청년들이 교회의 파송과 선교단체 허입을 통해 1년 이상 선교사로 나갈 경우, 생활비의 일부를 매월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타문화선교는 전략과 유행 아닌 성경의 변할 수 없는 방향”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4일 오후 개회예배와 소그룹, 문창선 목사(위디국제선교회 대표)의 세계선교 흐름을 소개하는 GMT(Global Mission Trends) 발표, 저녁 집회로 진행된다. 5~7일까지는 아침찬양에 이어 문대원 목사가 5, 6일 오전강해, 7일은 주영광 선교사가 오전강의를 하며, 오전 미셔널 세바시, 점심 이후 선택식 강의, 다이나믹 배움터 및 선교단체 부스 관람, 저녁집회가 동일하게 진행된다. 매일 일정은 기도합주회로 마무리된다.

장연식 선교사는 “복음이 없는 땅에 대한 선교의 흐름은 절대 유행이거나 한 때 전략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계속되는 변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을 선교한국대회 때 강조하고, 청년들이 그 흐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목사는 “막연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분명 전방으로 나가 여러 타문화를 경험하고, 그런 장단기 선교사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이 땅에서도 건강한 다문화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문화선교에 대한 동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시기야말로 더욱 힘을 내 타문화로, 전방으로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 주관 단체도 기존 선교한국의 회원 학생선교단체들이 순차적으로 맡았던 것과 달리, 총회 의장 단체가 핵심스태프를 맡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025 선교한국대회 총회 의장인 허태영 간사는 “(2023년) 지난 대회부터 총회 의장 단체에서 핵심스태프 30명 정도를 맡고, 자원봉사팀과 대회를 치르는 형태가 됐다”라며 “이번에 SFC가 팀장급까지 30명을 운영하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채워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 선교사는 “연합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한 단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를 멈추고, 의장단체가 11개 회원 학생선교단체와 연합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 선교한국대회에 기대하는 점?

이날 이승준 목사는 “선교한국이 열정이 남아 있는 청년들이 열방을 향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고, 안내 지침서가 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다른 한편으로, (선교한국대회가) 통상 캠퍼스에서 이뤄졌는데, (이번에) 장소가 교회다. 교회가 조금 더 발 벗고 나서서 다음세대 청년들을 함께 선교할 수 있는 동역자로 자리매김하는 첫걸음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연식 선교사는 “이번 선교한국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청년들이 희망을 만나고, 선교 헌신을 통해 나가는 자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선교에 다시 한번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허태영 간사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대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리더 양육이 어려웠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1~2년이 지났는데, 리더십들이

갖춰야 할 것 중 하나가 세계복음화와 전방위적 선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는 빌드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청년 그룹, 리더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자들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도전받는, 한 명 한 명이 의미 있는 대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 선교사는 “요즘 청년들의 선교이야기가 이번 선교대회와 한국교계, 선교계에 많이 들리고 풍성해지면, ‘K-선교’가 SNS와 교회 수련회, 각자 청년부 활동에서 소개될 것”이라며 “2025년 선교한국대회 때문에 10년 뒤, 5년 뒤 선교사가 되어 선교적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전했다.

박선영 총무국장은 “학생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바쁘고 엄청난 경쟁 속에서 힘든 대학생들을 많이 보게 된다”며 “빌드업되는 방향성이 학생들에게 시야가 넓어지고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총무국장은 “대학생 때 타문화를 경험하고 선교적 각성 경험이 있어야 평생의 삶 가운데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대학생 때 꼭 경험해야 할 제자훈련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코로나로 끊겼던 학생들의 선교에 대한 배움과 훈련이 성장을 통해 더욱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그 경험을 통해 평생 살아갈 선교적 감을 익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목사는 “이번 선교한국대회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세움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최윤 선교사는 이날 “한 마디로 청년들이 복음의 새 술에 취하기 바란다”라며 “새 부대가 어디 있냐고 묻는데, 우리가 새 술에 취하면 옛 부대가 터지고 새 부대가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 선교사는 “세상에 취하고 세상적 가치에 취하면 그 권법으로 자신의 인생도 살 수 없고 교회와 민족, 열방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다”며 “그러나 복음과 성령의 새 술에 취해 새 부대가 만들어지도록 청년들이 새 술에 취하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 대체하는 선교수련회로도 참가할 수 있어”

2025년 4월 1일부터 선교한국 홈페이지(www.missionkorea.org)에서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1차 등록(4~5월), 2차 등록(6월), 3차 등록(7월)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다르다. 개인 참가뿐 아니라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대체하는 선교수련회로도 참가할 수 있다. 숙소는 수도권 거주 청년은 출퇴근을 권장하며, 지방 거주 청년은 스스로 숙소를 구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근 게스트 하우스, 교회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조직위원회는 “수도권 교통의 요지에서 진행하는 만큼, 직장인들이 퇴근하여 저녁마다 있을 네 번의 선교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브닝 패스를 만들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전체 참석을 권면하지만, 사정상 전체 참석이 어려우면 원데이 패스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英국민 10명 중 7명 "조력자살 도입 전 완화치료 우선해야"

英의회, 법안 개정 위한 토론 예정

영국 의회에서 법안 개정을 위한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력자살 합법화 계획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회가 안락사 도입을 고려하기 전 완화 및 임종 치료의 미래를 조사할 왕립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5천명 이상의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속된 보호에 대한 회의론도 나타났으며, 대다수(59%)가 "안락사를 강요당하는 것을 항상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노동당 의원 킴 리드비터의 '말기 성인'(Terminally Ill Adults) 조력 자살 법안은 두 명의 의사와 고등법원 판사가 조력 자살 신청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신청자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컬데이타(Focaldata)가 '케어 낫 킬링'(Care Not Killing) 연합을 대신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분의 3(73%)이 법안 변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락사'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드러났는데, 6명 중 1명(17%)은 그것이 호스피스 치료를 포함한다고 잘못 생각했고, 절반(52%)은 그것이 '생명 연장 치료'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또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데 절반 이상(58%)이 찬성했다. 아울러 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56%)은 조력자살이 합법화되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현재 상태로는 일부 사람들이 조력 자살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비슷한 비율(57%)의 응답자는 완화 치료에 비해 비용이 낮기 때문에, NHS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길 것이라고 동의했다.

케어 낫 킬링(Care Not Killing) CEO인 고든 맥도날드 박사는 조사 결과를 통해 "영국 국민은 의원들이 NHS를 개선하고 완화 및 사회 복지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기를 원하며, 취약 계층, 노인, 장애인이 조기에 자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위험하고 이념적인 정책을 도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가 12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하여 안락사에 대한 법률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일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받았다는 소식, 영국에서 완화 치료 의사의 명확한 다수가 법률 변경에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대중들의 지지의사는 급격히 약화된다"고 했다.

그는 "메시지는 더 이상 명확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인이 아니라 보살핌"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건강 문제로 설교 중지한 존 맥아더 목사, 추수감사예배 복귀

건강 문제로 몇 달간 강단을 떠났던 미국의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 목사가 일시적으로 복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존 맥아더 목사는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기는 했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다고 한다. 그가 추수감사절 성찬 예배를 위해 설교단에 서자 교인들로부터 30초간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는 세 번의 심장 수술과 폐 수술을 포함한 수많은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도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했다고 CP는 전했다.

지난 7월 이후 주일예배에서 설교하지 않았던 맥아더 목사는 따뜻한 환대에 "저는 여전히 여기 있고, 그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설교단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는 것이 저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시련이 위장한 축복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종종 우리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맥아더 목사의 소감은 특히 역경에 직면했을 때의 감사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제 기분을 물으신다면, 저는 감사하다고

2022년 3월 9일 미국 LA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가 쉐퍼드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Shepherdsconference

말한다"라며 "제 인생의 모든 변덕, 모든 힘든 경험, 모든 도전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다. 그 도전이 무엇이든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 문제 덕분에 어려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작용하는 하나님 섭리의 선한 손길을 목격할 기회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것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며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분의 자녀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싶다. 아마도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 20일 교인들에게 건강 상태를 보고한 후 처음으로 성찬 예배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2023년 1월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기 전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에 가야 했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맥아더 목사는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맥에 스텐트 4개를 삽입하는 등 심장 수술을 받았다. 맥아더 목사가 전임 설교자로 복귀할지, 아니면 다른 직책으로 복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CP는 전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험을 거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면서 "시련 속에서 쉽게 압도당할 수 있는 것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제는 그것들을 특별히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신앙이 시험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시험에서 주님께 엄청난 감사가 나왔다. 그 분은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시련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미국인 59%, 트럼프 내각 인선 '좋은 선택'이라 답해"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한 지지율이 반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매체인 CBS뉴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성인 2천2백32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방식에 대한 생각을 묻고, 그의 내각 인선에 대한 의견도 수집했다.

응답자 중 59%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전환 처리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하는 응답자는 41%였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 지명자들이 취임하기 전 인준 심문을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압도적 다수(7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나머지 24%는 당선인이 인준 심문 없이 내각 지명자를 임명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 인선 운명은 궁극적으로 상원의 손에 달려 있으며, 공화당은 다가올 119대 의회에서 53대 47의 다수를 차지할 예정이다. CBS뉴스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은 내각 인선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선택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4%가 "좋은 선택"이라고 답했다. 25%는 그를 내각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고 표현했고, 나머지 31%는 후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기에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루비오의 인준은 양당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 중 절반(47%)이 민주당에서 독립으로 전향한 전 대통령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묘사했다. 34%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를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백악관

나머지 19%는 지명자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에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외교 정책에 대한 반개입주의적 견해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부과된 예배 제한 및 봉쇄에 대한 반대 때문에 많은 정치적 우파로부터 호의적인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낙태에 대한 지지로 일부 공화당원들은 케네디를 반대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임했던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상원에 케네디를 보건복지부 장관직에서 거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응답자 중 다수(39%)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국방장관 후보인 피트 헤그세스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약간 더 높은 비율(33%)의 응답자는 그를 "좋은 선택"이라고 보았고, 28%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답했다. 군 참전 용사이자 폭스뉴스의 '폭스 앤 프렌즈 위켄드'(Fox & Friends Weekend) 공동 진행자인 헤그세스는 "여성이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응답자 중 동일한 비율(36%)은 툴시 가바드(Tulsi Gabbard)를 국가정보국장으로 일하기에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했으며 그녀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28%는 그녀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미경 기자

캐나다 총리 "트럼프 관세 위협 심각, 한다면 할 것"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과 관련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정말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실천할 생각이라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트뤼도 총리는 또 "트럼프는 결국 캐나다 국민을 해치는 것을 넘어 미국 국민의 생활비도 올리게 될 것이며 미국 산업과 기업을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트럼프 1기 때 했던 것처럼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27일 밤 13명의 주지사 전원과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해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가 주지사들에게 모든 통로를 동원해 중요 정보를 입수해 전달해 줄 것과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캐나다 이익을 지키고 양국의 번영을 뒷받침해온 모든 경제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영진 기자

Q LG의 AI / 바이오 기술에 바라는 게 있나요?

내 인생 앞으로도 쌩쌩!

로드 사이클 마니아 이동석 님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기를 꿈꿉니다.
LG는 AI 기반 바이오 기술로 신약개발의 속도를 높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매니아
28세 이동석 님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감액 처리' 강행키로

"정부·여당과 합의 불발… 특활비·예비비 등 대폭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의 합의 불발로 2025년도 예산안을 감액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된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 해병 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재정 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 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 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을 "민생과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감액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이 삭감됐다. 또한 예비비 2조 4000억원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이 이를 '방탄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됐다. 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제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상황을 고려해 감액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순직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박찬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1월 수출 1.4% 증가, 14개월 연속 상승세

반도체 수출 30.8% 급증에도 자동차 업계 파업 여파로 13.6% 감소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3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도 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 상승하며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올해 1~11월 누적 수출은 6222억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8.3%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25억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30.8% 증가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으로, 4개월 연속 월별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HBM과 DDR5 등 고부가가치고 성능 메모리 제품으로의 신속한 포트폴리오 전환이 이러한 성장을 견인했다. AI 서버와 기업용 SSD 등에 사용되는 고용량 메모리 제품의 꾸준한 수요도 호조세 유지에 기여했다.

반면 제2의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파업과 임금·단체협상 지연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56억 달러를 기록하며 13.6% 하락했다. 월말의 풍랑과 폭설로 인한 수출 차량 선적 지연도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5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113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대미 수출은 자동차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의 급증으로 104억 달러를 달성했다. 대EU 수출은 선박, 무선통신기기, 바이오헬스 부문의 호조로 54억 달러를 기록하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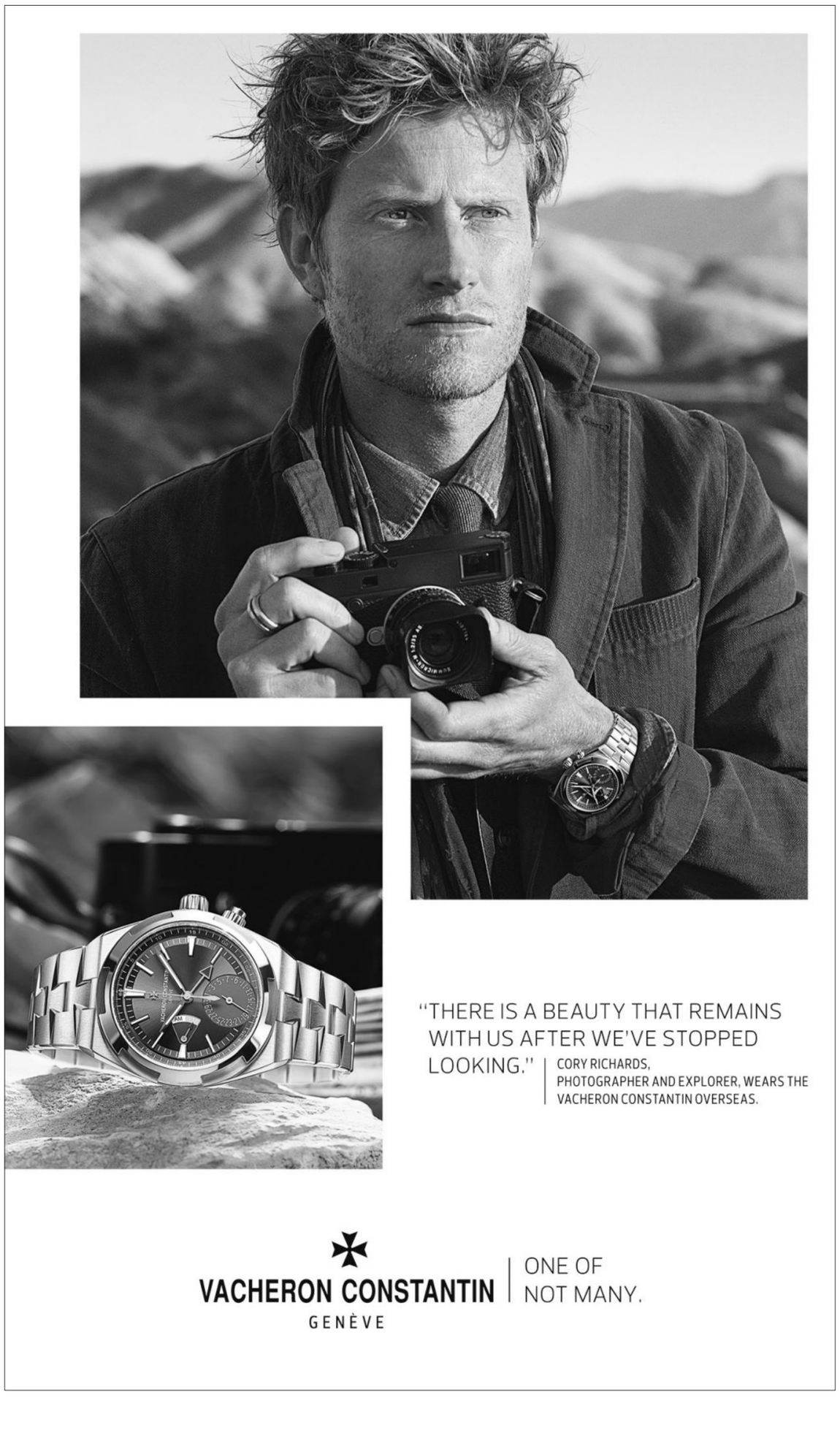
수입은 507억4000만 달러로 2.4%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이 107억1000만 달러로 10.8% 감소했으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외 수입은 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11월까지의 누적 무역수지는 452억 달러 흑자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과 기상악화 등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와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연말까지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무역수지 역시 18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뉴시스



트럼프, BRICS의 탈달러화 시도에 "100% 관세" 경고

"미 달러화 대체 통화 지원시 미국 수출길 막을 것" 강경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BRICS 연합의 탈달러화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BRICS가 독자 통화를 만들거나 달러화를 대체할 통화를 지원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BRICS는 브라질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등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가 추가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며, 다수의 국가들이 가입 의사를 표명하며 연합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달러화는 현재 국제 거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약 58%가 미 달러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유와 같은 주요 원자재 거래 역시 달러화로 결제되고 있다.

그러나 BRICS 국가들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점유율이 증가하고, 이들이 달러화를 배제한 거래를 확대하면서 달러화의 지배력이 도전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월 BRICS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달러화를 무기화했다"며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단기간에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달러화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안전하며, 여전히 다른 통화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BRICS 연합의 탈달러화 시도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100%라는 고율의 관세 부과 위협은 미국 시장 접근성을 통한 경제적 압박을 시사하며, 향후 국제 금융 질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홍은혜 기자

217억 원 규모 '인구활력펀드' 내년 상반기 결성

인구감소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첫 걸음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대규모 벤처투자 자금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217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 출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인구활력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에서 95억원,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이 출자되어 총 2개의 벤처펀드로 운영된다.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0억원보다 17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펀드가 첫 도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는 것이다. 2개 벤처펀드 선정을 위한 공모에 14개 운용사가 지원해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정된 펀드는 2024년 상반기 내에 결성을 완료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벤처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인구활력펀드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지역에도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벤처기업들도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구활력펀드의 조성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민간 투자자들의 지역 경제에 대한 관심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이 펀드를 통한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나래 기자

해비타트·션, 독립유공자 후손에 15번째 보금자리 헌정

한국해비타트는 가수 션과 함께 항일농민운동을 주도한 박병두 선생의 후손에 새 보금자리를 헌정했다. ©한국해비타트

한국해비타트는 2020년부터 광복절 기념 기부 마라톤 '815기부런'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 사업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해비타트

기부마라톤 '815' 통해 기금 조성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가수 션이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열다섯 번째 보금자리를 헌정했다.

이번 새 보금자리는 항일농민운동을 주도한 애국지사 박병두 선생의 후손에게 전달됐다. 전라남도 광양에 위치 이번 보금자리는 매해 광복절에 개최하는 기부마라톤 '815런'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지어졌다.

박병두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지주가 무리한 소작료를 징수하는 등 횡포를 부리자 농민들을 이끌고 시위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정부는 항일농민운동을 주도한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박병두 선생의 후손 가정은 "증조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바치셔서 부모님도 그동안 힘들게 지내오셨다"며,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께서 이전 집에서는 위험해서 밖에 잘 못 나가셨는데, 새 집에 입주하신 후 산책도 하시며 근력도 컨디션도 좋아지시는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후손 가정은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에서 헌정식을 가졌던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다세대 주택 10가구 중 하나로 입주했다. 해당 다세대 주택은 가수 션과 배우 박보검 등 많은 봉사자들이 건축봉사에 참여, 손길을 보탠 곳이다.

815런 캠페인 홍보대사인 가수 션은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그 후손에게 대신 전하고 싶다"고 했다.

815런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기부 마라톤으로, 참가비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기부 마라톤이다. 올해는 1만 4천여 명의 러너가 참여하고 55개 기업의 후원과 개인 후원까지 총 13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백선영 기자

"시각장애인도 OTT 이용할 수 있도록"

OTT플랫폼·화면해설 관계자, '장애 친화적' OTT 위한 간담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이 주최하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가 주관하는 '장애 친화 OTT 서비스 생태계 조성 간담회'가 최근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화면해설 제작 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OTT 서비스와의 원활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방송공사(KBS) △LG U+ △콘텐츠웨이브 △(주)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등 총 6개 국내 대표 OTT 플랫폼사들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사회적협동조합 하다 등 화면해설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인남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국내 OTT플랫폼과 함께 장애 친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분석한 'OTT플랫폼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OTT플랫폼사들이 장애인 앱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 가능한 방향성에 대해 짚어보고, 시각장애인의 시청복지 확대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OTT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석해 시각장애인이 국내 OTT 플랫폼 이용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을 위한 요청 사항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국내 OTT 화면해설 콘텐츠 확충 및 앱 접근성 고도화 등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6개 국내 대표 OTT 플랫폼사와 화면해설 관계자들이 모여 장애 친화 OTT 서비스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가졌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한승진 차장은 "국내 OTT플랫폼에 유익한 콘텐츠가 날로 확충되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도 같은 감동, 같은 즐거움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방송의 지속적인 확충과 OTT플랫폼의 접근성 개선 노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OTT 플랫폼 관계자들은 "친장애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애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효과적인 화면해설 서비스를 위해 앱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선영 기자

기아대책, 2024 기후변화 이슈리포트 발간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2024 기후변화 이슈리포트 2호 『기후변화와 빈곤, 식량위기』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발간한 '기후변화 이슈리포트'는 기아대책이 지원하는 해외의 '지역 취약 공동체'가 기후변화로 겪는 식량 위기 및 빈곤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리포트에서는 기아대책의 지원 사업 대상 국가인 아프리카 가나와 짐바브웨 내 현지 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다뤘다.

더불어 현지 농업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면밀히 알리고 이에 대응하는 기아대책의 사업과 효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호 리포트에서 다뤘던 우간다와 마다가스카르 지역의 긍정적 성과도 후속으로 담았다.

기아대책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통해 가나 봉고 주민이 농작물을 수확한 모습. © 기아대책

기아대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미션 NGO의 사명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리포트에 수록된 '가나 봉고 지역 기후변화 대응 농업훈련 지원 사업'과 기아㈜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인 '짐바브웨 웨자 지역 기후변화 대응 농업 허브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 모두 현지 정통한 전문 인력과 지식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온전한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기아대책은 세계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슈리포트의 연례 발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현지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굿네이버스, 아동 마음건강 증진 토론회 성료

굿네이버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과 함께 '아동 마음건강 증진 토론회'를 최근 개최했다. 굿네이버스는 각계 전문가와 아동이 함께 아동의 마음건강 실태를 살피고, 마음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기조발표는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아동 마음건강 현황과 실태'를 주제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전과 후를 비교하며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는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가 '아동 마음돌봄 및 사회정서역량 증진을 위한 과제'로 민관이 함께 사회정서역량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사례발표로 김영미 굿네이버스 미래성장지원팀장은 굿네이버스가 아동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자체 개발하고 진행한 사업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의 자기조절향상을 돕는 '내 마음을 피자'와 스마트폰과몰입 예방 프로그램 'I'm Good Maker', 감염병과 불안, 스트레스 예방을 돕는 '마음토닥 몸도계' 를 소개하고, 아동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과 아동 참여 기반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렸다.

굿네이버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과 함께 '아동 마음건강 증진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굿네이버스

이후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시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 성혜연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경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 강사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최승연 기자

배우 변요한·정은지, 사랑의열매 연말광고 모델로 참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배우 변요한과 정은지가 2024년 연말 광고에 모델로 참여한다고 최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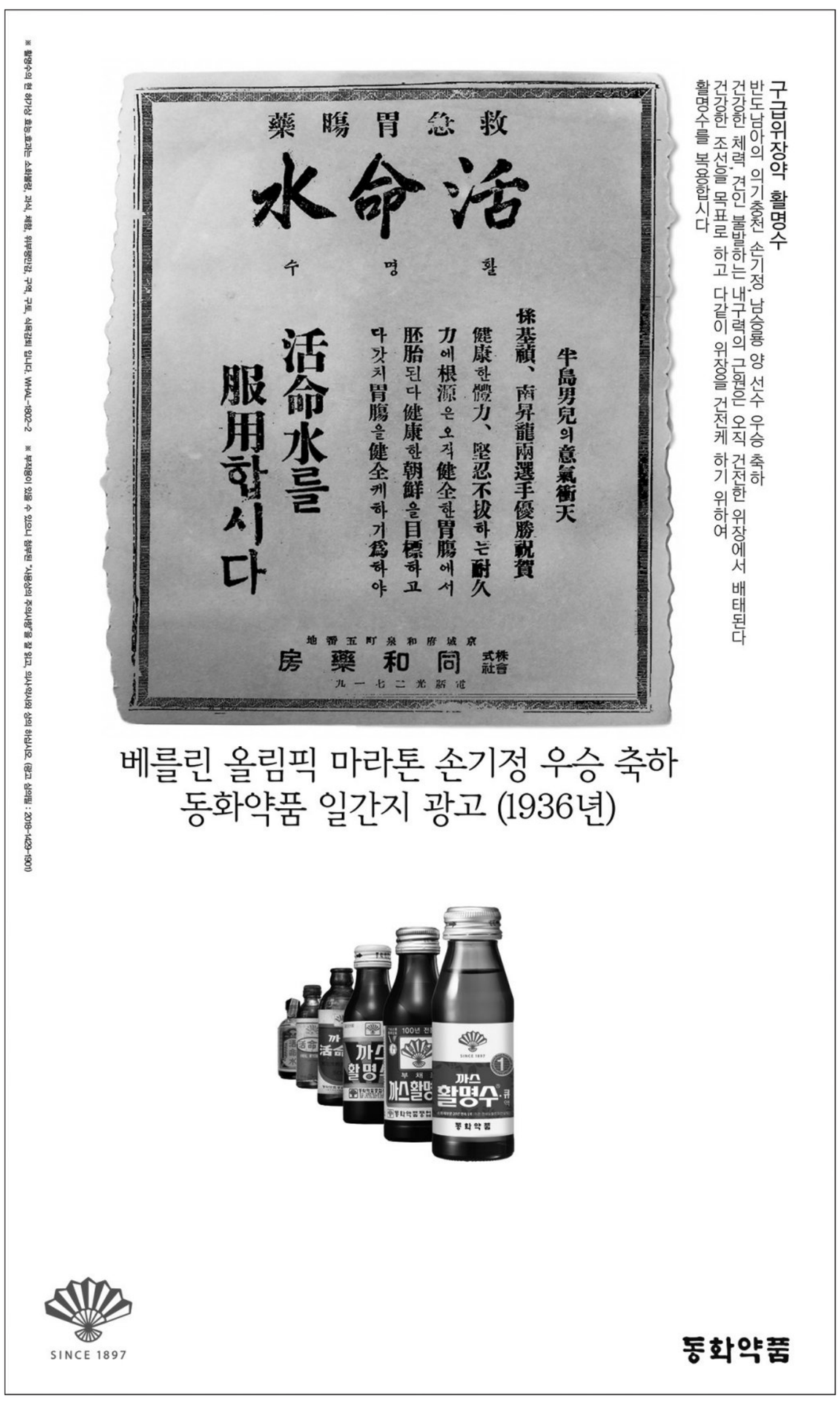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연말 광고의 주요 콘셉트는 '나를 폼나게 세상을 폼나게'이다. 광고 속 변요한과 정은지는 '기부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모습이 폼나'라는 메시지를 통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부 트렌드인 기부 효능감을 이야기한다.

사랑의열매는 희망나눔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기부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말 광고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부, 키오스크를 활용한 기부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방법을 보여준다. 나를 폼나게 세상을 폼나게 하는 기부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위기가정,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초생계, 교육자립, 사회적돌봄, 주거환경, 보건의료 등의 사업을 지원하며 기부의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두 모델은 이번 연말광고뿐만 아니라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서도 나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변요한은 영화 '자산어보', '한산', '그녀가 죽었다', 드라마 '미생', '미스터 선샤인', '삼식이 삼촌',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등에 출연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며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은지는 걸그룹 에이핑크의 메인보컬이자 싱어송라이터로, 드라마 '응답하라 1997',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등에서 연기 활동을 펼치며 멀티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최승연 기자



"성경 낭독자, 구두 해석자·섬기는 자·말씀 수행자·하나님 사역자"

최창국 교수(백석대 실천신학·사진)가 최근 복음과 도시 홈페이지에 '성경 낭독자도 설교자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교수는 "예배에서 성경 낭독은 본질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예배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듯이, 성경 낭독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낭독자도 설교자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개혁교회 예배의 중요한 지침인 '대요리문답' 156번은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사들의 독특한 책임이어야 하듯이, 말씀을 낭독하는 것 역시도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낭독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사이의 동등성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낭독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권위의 동등성이 사람의 직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인간의 직분이나 행위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즉,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인간의 직분이나 행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목사가 성경을 낭독할 때나 일반 성도가 낭독할 때나 성경은 그 자체로 동등한 권위를 유지한다. 성경 낭독의 자격이 직분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배에서 공적 성경 낭독의 자격은 단지 직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말씀의 권위에 대한 존경, 이해, 준비된 마음, 에토스, 성경과 청중과 교감하는 능력 등"이라며 "먼저 성경 낭독자는 읽고자 하는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 낭독자는 청중이 말씀의 제단으로 나아가도록 섬기기 위해서는 본문과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 낭독자는 본문과의 교감을 통하여 본문의 진리들을 내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경 낭독자의 임무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에 청중을 위한 '구두 해석자'라고 할 수 있다"며 "성경 낭독자는 단순히 성경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성경 낭독자는 본문과 교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청중과 교감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외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내적 차원을 수반한다"고 했다.

또한 "성경 낭독자의 말씀을 통한 섬김은 그의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낭독자의 인품과 삶이 자신이 진술하는 성경 말씀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경 낭독자는 성경 본문과 청중을 동시에 섬기는 유능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성경 낭독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사명 인식과 함께 하나님과 교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성경 낭독자는 구두 해석자이며, 섬기는 자이며, 말씀의 수행자이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교회 예배나 모임에서 잘 훈련된 성경 낭독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는 현대 교회가 성경에 대한 지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음성을 듣는 차원에서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설교자와 성경 공부 인도자와 제자 훈련을 위한 리더의 양육뿐 아니라 성경 낭독자도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친목을 위한 교제나 단지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도록 하는 데 있기보다는 성도들이 풍성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경과 소통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과 성경과 소통하는 능력에 비례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경과 깊이 있게 소통할 때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보다는 성경을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정형화된 틀에 빠질 수 있다"며 "예배에서 성경이 낭독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력 있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청중의 듣는 능력도 중요하다. 그것은 청중은 단순히 낭독자의 소리를 듣는 관객이 아니라 공동 창작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배에서 성경이 낭독될 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낭독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마음, 감정, 몸, 호기심, 상상력, 의지까지 동원해야 한다. 즉 마음을 열고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통해 본문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예배에서 성경이 낭독될 때 방송에서 시나 수필이 낭독될 때 듣는 것과 같이 들어서는 안 된다"며 "성경이 낭독될 때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들으려는 자세는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쉽다.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형성해 온 선입견, 취향, 경험 등으로 구성된 인식 필터를 통해 들으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이 낭독될 때 이렇게 듣게 되면, 인격적이고 친밀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성경이 낭독될 때 열린 마음과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자세로 접근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 지성보다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된다. 성경이 낭독될 때 이러한 자세로 성경을 대하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대하려는 자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지주의적 문화 속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성경도 지적이고 분석적으로 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예배에서 성경이 낭독될 때 인식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자세는 훈련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다.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인간적 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자신을 열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다"며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고 인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경을 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영으로 대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이신 성령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자살과 기독교적 반응: 과거의 교훈과 현재의 성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는 브라이언 해리스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역사에서 자살의 고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What we can learn from how the anguish of suicide was handled in history)을 27일(현지시간) 개제했다.

해리스 박사는 컨설팅 회사인 Avenir Leadership Institute를 이끌고 있으며 이 단체는 전 세계에 필요한 리더 양성을 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자살이라는 비극

자살처럼 비극적인 일이 또 있을까? 자살은 그 자체로 끔찍하며, 자살에 이르게 하는 고통은 엄청나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매우 다르다. 깨진 관계, 극복하기 어려운 중독, 건강 위기, 만성적 우울증, 경제적 붕괴, 공공 망신,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오랜 절망, 정신 건강 문제, 혹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까지 이유는 다양하며 모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다.

자살은 삶을 끝내는 개인에게 비극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짐을 남긴다.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유족들에게 교회가 가장 사랑과 지원을 보여야 할 시점에서, 역사는 종종 반대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오히려 교회의 태도가 남겨진 사람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했던 사례들이 많다.

◈역사적 관점: 자살에 대한 초기 반응

1. 로마 시대의 자살관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 로마 시대에는 자살이 실용적이고 실리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몇몇 집단에서는 금지되었는데, 이는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노예: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자살하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었다.

죄인: 재판을 기다리던 죄인이 자살하면, 국가가 유죄 판결 후 재산을 몰수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군인: 군인이 자살하면 배신자로 간주되었고, 이는 국가와 군대를 포기한 행위로 여겨졌다.

반면,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살은 애국적이고 권위를 유지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살을 현실이 견딜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았다. 당시에는 자살 윤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많지 않았다.

2. 초기 기독교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

5세기에 접어들어, 기독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살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그의 저서 '신의 도성(The City of God)'에서 자살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살은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로, 여전히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중세 시대: 죄와 범죄로서의 자살

6세기경, 자살은 단순히 죄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범죄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자살이 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자살자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고, 이는 남겨진 유족들을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

자살을 죄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라는 믿음에 어긋난다는 점이었다.

4.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여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살이 하나님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회개가 불가능한 죄라고 강조했다. 자살은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5. 교회 관행과 유족에 대한 잔혹성

교회의 자살에 대한 비난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가장 일반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은 기독교적 장례식을 거부당했으며 성지(교회에서 축성된 땅)에 묻히지 못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식이 허용되었지만, 밤중에만 진행되어 거의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다.

더욱 기괴하고 비인간적인 관행도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살한 사람의 심장에 말뚝을 박고 십자로에 묻었다.

말뚝: 유령이 몸에서 빠져나와 남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다고 여겼다.

십자로: 십자가 모양의 도로에서 유령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한다는 미신적 믿음이 있었다.

◈현대 교회의 변화와 회복

1983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살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장례식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이나 두려움이 자살 결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환영받을 만하지만, 이전 수세기 동안 교회가 자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한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다. 단지 교리적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든 이 역사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교회는 종종 인간의 기쁨, 고통, 혼란으로부터 단절된 신학을 추구했을 때 깊이 비인간적이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과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리는 냉혹할 수 있다.

◈목회적 신학의 중요성

교회는 삶의 혼란 속에서도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신앙이 진정으로 체계적이지 않을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되다. 삶은 종종 혼란스럽고, 때로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흘러갔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결론: 자비와 공감으로 나아가기

교회는 진리를 실행하려 할 때, 그 진리가 인간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삶의 복잡성을 열어두며, 질문을 억누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친절과 공감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승연 기자

과연 누가 살인자요, 누가 사기꾼인가?

박온순 목사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무지개신학연구소 소장 김준우 은퇴 목사의 글을 읽고

2024년 3월 4일, 이동환이 감리교회에서 출교가 확정됐다. 이후 6월 1일, 서울퀴어집회에서 출교당한 이동환의 뒤를 이어 동일한 축복식을 행한 6인의 목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동환을 출교했으니 우리도 할 것이냐? 할 테면 해보라 하며 축복식을 행하였다. 그들이 바라는 바대로 5개 연회(서울, 서울 남, 중부, 남부, 충북)에 고소가 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137명의 목사들이 이미 출교를 당한 이동환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각 연회마다 심사에 붙여진 상태다. 2024년 10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에서는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김준우 무지개신학연구소 소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 반발하며 2024년 11.26일 자 당당뉴스에 "교회가 살인자들, 사기꾼들, 꼭두각시들의 놀이터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그렇다면 김준우 소장이 그간에 보인 행보는 무엇일까? 과거의 일은 차치하고라도 근일에 행한 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준우 은퇴목사는 그가 세운 무지개신학연구소의 이름으로 2020년 12월 14일에 퀴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한 이동환에게 '무지개목회상 제1호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이동환은 당시 경기연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무지개신학연구소에서는 "퀴어성서주석"을 출판하여 2021년 04월 20일부터 발매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인 김준우 소장에게 공개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동성애를 했다는 모욕을 넘어 역겨운 소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살인자요, 사기꾼이요, 꼭두각시의 놀음인가? 하나님은 전능자시기에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창조하셨다고 해야 예수와 바울의 복음이요, 감리교회의 정체성인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의 대표들이 '퀴어신학개론'을 읽어야 지성적인가? 그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이며 웨슬리적인 감리교회인가?"

김준우 소장이 예수와 바울과 웨슬리를 인용하고 있기에 성경과 웨슬리의 신학 전통을 살펴봄으로 역설적으로 김준우 소장의 행보가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웨슬리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로서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6:38-40)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다. 퀴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과연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진리를 멸시하고 수많은 성을 창조하셨다는 논리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단 말인가? 영생과 부활을 얻기에 성경 66권이면 족한 것을 괴상한(퀴어)논리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김준우 소장은 위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독설을 퍼부었다.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선언한 감리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것이며, 기성세대가 모두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미혹케 하는 영'(딤전 4:1)에서 벗어날 것이다. 예수와 바울의 포용과 환대와 차별 철폐의 복음과는 반대로 성소수자들에게 교회의 문을 공식적으로 닫아 버린 감리교는 세상 사람들과 젊은 세대에게 버림받고, 더욱 빠르게 몰락할 것이 분명하다"

과연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될까?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어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감리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일까? 과연 누가 미혹케 하는 영일까? 실소를 금할 수가 없고 영혼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여전히 두고 보시는 주님의 인내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마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고 기록하였다. 퀴어를 말하는 이들의 함정은 예수의 포용, 환대 운운하지만 정작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다.

인간의 본성적인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인성과 신성을 지닌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물론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적 예수만 운운하는 이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라는 것을 알지만, 진짜 목사라면 동성애자들에게 육체의 일락에 빠져있는 연약함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전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상실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눅8:40)하도록 가르쳐 줘야하는 것이다.

목사라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환대가 아니라)하며 기쁨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잠시잠깐 뿐인 육체의 일락에 빠져 중독이 되어 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지라도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환대가 아니라)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히11:13-14)

진짜 목사라면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로서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환영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과연 누가 살인자요, 사기꾼이라는 말인가?

2. 바울이 전심을 다하여 전파한 복음

김준우 소장은 퀴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한 자들이거나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무조건적이며 무차별적이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 예수(마태 5:45)와 바울(갈 3:28)의 포용과 환대와 차별 철폐의 급진적 평등성(radical equality)의 복음을 실천한 목사들"이라고 한다. 임자를 아는 소와 주인의 구유를 아는 나귀가 하품하다 못해 발길질 할 일이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안식을 누리고 있을 바울이 벌떡 일어나 언성을 높이며 외칠 일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1:7-10)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동성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일까? 퀴어신학개론을 읽어보지 못하면 무지랭이 취급을 하였을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개념이 없고 반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책망한 것일까? 그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바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며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 천둥 번개에도 놀라자빠질 인간들이 바울도 게이였다고 모욕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2:2)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3:10-12)

도대체 퀴어를 말하는 자들은 어떤 성경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상관이 없고 그들이 말하는 바울과도 상관없는 논리로 영혼들을 미혹하니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3. 웨슬리의 신학전통

김준우 소장은 30여 년 전의 사건인 변선환 학장과 홍정수 교수에 대한 재판을 들먹이며 웨슬리의 전통을 거부한 공식적 결정이라고 비난하였다. 그것은 "반복음적이며 반성경적이며, 반 기독교적이며, 반 웨슬리적이며, 반 과학적이며, 반 인권적인 결정"이라고 하였다. 과연 그럴까? 웨슬리는 그의 설교집 제1권 제 4편의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옛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닥쳐올 진노(마3:7, 눅3:7)에서 피하도록 그리고 지금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도록 경고하면서(마23:33)"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갈6:10)힘썼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17:30)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겔18:30)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행24:25)"(웨슬리 설교전집 제1권76-77쪽)

"당신들 중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나 아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출20:7) 않습니까? 아니 그 뿐만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는 자가 당신들 중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그들의 수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까봐 두렵습니다"(위 전집 90쪽)

4. 결론

그동안 김준우 소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가르침의 선봉에 있(었)다. 결국에는 괴상한(퀴어)신학을 출판하여 반기독교적이며 반감리교회적이고 반 웨슬리적인 행보를 확장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혼을 죽이는 반인권적인 일이요, 반이성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과 반성경적인 이단 사설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치리하여야 한다.

은퇴 후 원로 목사로서 여전히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성도들이 제공해 주는 은급 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며 그동안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고 잘 가르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도 모자랄 시간에 젊은 목회자들을 아바타로 내세워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어찌 이를 더 이상 두고 보아야만 하겠는가! 그러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김준우 무지개신학연구소 소장을 반드시 성경과 교리와 장정대로 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생명 후의 생명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1950년대 미국에 레이몬드 무디란 의사가 있었습니다. 무디 박사는 원래는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철학 교수로 지나다가 어느 날 뜻을 달리하여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하였습니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신과 의사가 되어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재직 중인 병원에서 가끔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긴 하였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죽어 있었을 동안에 체험담이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직이 철학 교수였던지라 호기심이 남달라 그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어 있었을 동안의 체험을 임사 체험(臨死體驗)이라 합니다. 무디 박사는 임사 체험이 비슷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하기로 작심하고는 세계의 명문 의과대학의 종합병원에 서신을 보내어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례가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사례를 150건을 모으고는 병원에 휴직을 하고는 150명의 사례를 일일이 만나 그들의 임사 체험을 녹음하고는 그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렇게 분석 연구한 내용을 모아 출간한 책이 생명 후의 생명(Life after Life)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실린 내용이 워낙 생생하였기에 세계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류근일 논설위원이 번역하여 출간되었습니다. 한국 번역판의 제목은 〈죽음 후의 생명〉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150 명의 임사 체험 중에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저승에 갔을 때에 밝은 빛이 다가왔습니다. 빛 중에 빛의 근원이신 분이 다가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그대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하늘이 맡긴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였느냐?"

이렇게 2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깨어난 분들의 3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죽기 전의 타락하였던 삶을 완전히 벗어나 새 출발하였습니다.

둘째는 스스로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셋째는 기회만 있으면 이웃을 돕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 2022 - 1618 - 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삠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몰트만과 바르트가 본 '악'의 문제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장

◈몰트만이 본 악의 문제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주기도문이 고백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자신이 아우슈비츠에서 순교자들과 함께 고난 받지 않았더라면, 신학은 불가능하다"고 되뇌인다.

요나스가 아우슈비츠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기했다면, 몰트만은 하나님 표상을 수정한다. 그는 하나님을 '무감정의 신'이라는 오해에서 건져내며, 귀납적 추론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무신론의 전통도 비판한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라는 그는 '고난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을 역설한다.

하지만 "고난을 하나님 안에 수용함으로써 악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여전히 이 문제는 몰트만에게 있어서도 난제였다.

몰트만적 견해는 신정론을 종말론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불의는 사라지고 눈물과 고통과 죽음조차 없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으며 악은 당연히 사라진다.

어찌 보면 악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더라도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찌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종말론적 미래에 모든 것을 미루어 놓으면 해결될 듯 보이던 것이 지옥의 영벌 문제에 부딪히면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knowing God)이란 악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기독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칼 바르트의 신정론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신정론을 기독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바르트는 전통적 섭리론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원인으로 상정함으로써 치명적 결함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즉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행위에 모든 것을 의지한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르트가 볼 때 모든 사건이 모두 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스토아적 개념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하나님이 피조물과 더불어 맺으시는 언약 의지로 보았다. 바르트가 볼 때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 사건을 통할 때 악의 문제조차 해결의 근원을 찾게 된다.

그렇게 해서 바르트는 전통적 섭리론이 하나님을 '사악한 신'의 선포자로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경험하고, 실존적 피조물이기에 상처와 위험을 겪기 마련이다. 바르트는 이를 죄 때문이 아닌 '무(無)'로 구분하였다.

이로써 악과 고난을 오로지 인간의 타락 탓으로 돌리거나 인간의 도덕문제로 제한하려는 관점을 저지한다. 하지만 바르트는 인간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전체화해 사역을 부정하는 근본 죄악이라며 창조의 어두운 면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인간의 죄와 연관시키기도 하였다.

이렇게 바르트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답게 섭리론을 재정립하면서 악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보편주의자라는 의심을 받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다운 새로운 접근인 동시에 악에 대한 성경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초월적 해석의 프레임에 자신의 생각을 가두어 버린 것이 아닌지 일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악의 문제에 대한 신학자들의 고뇌

악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해석적 고뇌는 오늘날 세상이 보여주는 온갖 혼란과 모순 속에서, 그와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주와 생명과 믿음의 절묘한 삼중창 안에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만만치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케 만든다.

하지만 낙심은 금물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비장한 심정으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했다.

각각의 자기 짐은 당당하게 져야한다(갈 6:5).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다(갈 6:9).

11월은 감사의 계절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 본성을 거스르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고, 그 넘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한 주를 지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 중에 예기치 않았던 고난을 겪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먼저 생각 났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그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늘을 보며 전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위로하고 다시 말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일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으로 위로해야 할지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 주시고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게 하는 임무를 주셨다는 깨달음이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불어닥친 폭탄 강풍은 시애틀 지역의 여러 가구의 전기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일단 집이 너무 춥고, 어둡고, 전화기 배터리도 다 떨어져 가는 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강풍이 기도 많이 하는 집이라고 비껴가고, 죄 많은 집은 더 강하게 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가 고난의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강풍 전에 준비를 잘해 놓은 사람들은 전기가 나간 시기를 캠핑하는 것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없었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충전이 안 된 전화기를 붙들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의 시기를 위해 준비하고 믿음의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오히려 가족이 하나 되는 시기, 집안이 서로 화해 하는 시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한 마음을 넓히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하나가 어렵고, 위로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섭섭함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준비하는 과정 중의 하나가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우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웁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 이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떠오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아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함께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훗날 나 역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여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시다. 이 감사의 마음들이 형제를 더욱 굳게 할 것이며, 앞으로 올 모든 고난이 형제의 삶 속에서 소풍과 같은 좋은 추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형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감사의 여정을 이어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감사절에 더 많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핵전쟁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10,12-13)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핵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1945년 8월,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두 개의 원자폭탄의 위력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불란서, 인도, 파키스탄, 잠정적으로 이스라엘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만약 이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수년간 연구해 온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브라이언 툰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핵전쟁이 발발(勃發: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남)한다면 전 세계에서 그나마 안전한 곳은 (남반부) 호주와 뉴질랜드뿐이고, 핵전쟁이 벌어지면 72시간 이내에 지구촌에서 약 55억 명이 사망하고, 약 30억 정도의 생존자는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호주에 거주하는 분들 축하합니다.)

전직 언론인이자 소설 〈핵전쟁 시나리오〉의 저자인 애니 자코벤은 "3개 대륙에 걸친 화재로 인해 짙은 연기가 미니 빙하기를 촉발시킬 것이다. 생존자가 식량을 재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며, 세계 대부분 지역 특히 중위(中位)도 지역은 얼음으로 뒤덮일 것이다. 미국 Iowa주나 우크라이나 같은 곳은 10년 동안 눈으로 뒤덮일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녀는 "핵전쟁으로 지구의 대규모 환경변화가 발생해 빙하기가 초래되는 이른바 핵겨울(Neclar Winter)의 결과는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오존층이 심하게 손상되고 파괴되어 외부에서 생활할 수 없어, 사람들은 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핵 벙커가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전력이 유지되어야 유용하다면서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구해야 하는데, 이 일도 쉽지 않다. 사람들은 남아있는 작은 자원을 놓고 싸우게 되어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스타인 박사는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인간들은 돌과 몽둥이로 싸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3차 대전은 핵무기 싸움이므로 지구상의 모든 문명은 살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은 강대국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자멸(自滅)하는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올바른 해답입니다. 그러나 인간사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 일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또는 돌발적인 사건이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러시아의 핵 독트린을 개정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정을 한다고 정말 핵무기를 쓰지는 않겠지만, 막판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 발이라도 물어뜯는다는 말과 같이, 푸틴이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북한 공산당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은 암암리에 서울에 핵무기를 쏟아부을 가능성을 시사(示唆:미리 간접으로 일러줌)하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이 언제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시(豫示:미리 알림)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라고 예언했습니다. (벧후 3:10,12)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핵폭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언젠가는 핵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간에 지구(물질)는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며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며 삽시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자기개발

정태회 목사
DCMi 선교회 대표

델리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목격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민간인들이하는 탑승자에 대한 시큐리티 체크를 인도에서는 전투복을 입은 현역 군인들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껏 나를 가장 긴장하게 했던 공항 시큐리티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승객은 한 사람도 없었다. 어쩌면 인도인에게 이것은 공항의 일상적인 모습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는 이 질문을 해야 했다. "왜, 현역 군인이 공항 시큐리티 체크를 해야 하는가? 그만큼 인도가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단 말인가? 테러에 시달린다면 그 주범은 누구인가? 카스트제도가 만들어낸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반발하는 하류층(?) 사람들의 폭동인가? 인도 인구의 절대 대다수인 힌두교인과 거의 1억 8천만에 육박하는 무슬림 인구와의 갈등 때문인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빈부 격차에 대한 빈곤층의 반발 때문인가?" 물론 인도에 대해 문외한인 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찾아낼 수는 없었다. 단지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어온 생각은 이것 하나뿐이었다. "사고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예방이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공항 승객을 관리했다면 9.11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한다고 했던가? 발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리더의 리더십은 시간이 갈수록 퇴화할 뿐이다. 크고 작은 경험을 많이 한 노년이 되면 인간은 성숙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노인이 되는 것과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인간은 노인이 된다. 그러나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경험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리를 찾아내어 적용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다시 말해 리더십 퇴화를 방지하는 최상의 예방책은 끊임없는 자기개발이다.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바울은 자신이 공들여 길러낸 차세대 지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전 4:7). 여기 '연단하라'는 명령법 동사가 갖은 시상적 의미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훈련하라"이다. 핍박자 사울을 신약 세계 제일의 리더 중 하나로 만든 것은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이 아니다. 일회적 사건은 결코 탁월한 리더를 만들지 못한다. 바울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경건 생활이 그를 탁월한 영적지도자로 만들었다.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자신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리더가 시간이 지났다고 탁월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다. 탁월한 리더는 일회적 사건 (event) 이 아닌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 (process)을 통해 만들어진다.

존 맥스웰은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다. "성취는 오직 산 정상에만 있습니다. 탁월한 성취를 원한다면 매일 자기 훈련의 산을 올라야 합니다." 등산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산을 오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체에 근육이 생기고 몸에 힘이 오른다. 이렇게 되면 등산이 고통스럽지만은 않다. 오히려 산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전문산악인의 도전의식은 달아오른다. 해 볼만 한 싸움이다. 정상에 오른 기쁨은 등산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누구라 할지라도 매일 한 시간씩 특정 영역에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자신을 개발한다면 5년 후 당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20대, 30대의 차세대 리더가 읽는다면 마음을 다해 당부하고 싶다.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 자신의 실력이나 주님의 주신 천부적 재능을 신뢰하지 말라. 이미 탁월한 리더였던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남긴 비장한 당부를 매일 반복적으로 실천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을 실천한다면 이들이 50대가 되었을 때 이들은 이 시대에 탁월한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문화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남다른 카리스마, 탁월한 창의성, 끝없는 네트워크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질들이다. 그러나 당신을 탁월한 지도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자질은 매일 자신을 개발하는 성실한 노력이다. 농사의 세계에 당일치기는 없다. 봄과 여름에 걸친 농부의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만이 가을의 추수를 보장할 수 있다. 추수 감사절은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는 시즌이다. 주님은 항상 풍성히 주신다. 그런데 그 풍성함은 종종 농부의 성실한 노력과 정비례한다. 20대 중반에 읽었던 본 훼퍼의 시가 뇌리에 떠오른다.

자유를 찾아 떠나고자 하거든
그대의 욕망과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먼저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법을 배우라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훈련이 없이 자유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 리더는 결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 說

'차별금지법'에 볼모잡힌 나라의 현실

핀란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기독교 공연에 문제를 제기하자 타 학교에서 헨델의 '메시아' 연주 공연까지 취소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기독교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핀란드의 헤멘린나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제로 한 학교 내 합창 공연을 본 후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그 후 국가 차별금지 및 평등 재판소가 학교 가 비기독교인 어린이들을 종교와 신념으로 차별했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1천5백유로(약 217만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합창 공연은 해당 학교가 '기독교 신앙'을 주제로 주최한 콘서트 3건 중 첫 번째. 지난 2022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죽음, 속죄를 테마로 첫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을 관람한 학생이 자신이 종교적 차별을 받았다며 신고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한 매체는 지난해와 올해에도 콘서트가 열렸는데 3건의 공연 모두 종교적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첫 번째 공연에 "차별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자 학교 측은 두 번째 공연부터 찬양을 제외했다고 한다.

해당 학생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평등재판소의 판결을 놓고 지난 11월 19일 헤멘린나 시 교육복지위원회가 투표한 결과 6 대 5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복지위원회 한 위원은 "차별금지 및 평등 재판소가 차별을 주장하는 초등학생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위원회가 평등을 증진해야 할 교육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다른 학교에서 이달 초 계획했던 콘서트가 공연 이틀 전에 취소되는 등 주변 학교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 학교는 핀란드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헬싱키 실내 합창단과 함께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공동으로 공연할 계획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내용에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을 우려해 자진해서 공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는 전체 인구의 약 80%가 기독교인인 기독교 친화적 국가에 속한다. 기독교인 중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국민이 10%이고, 무신론자 17.1%, 무슬림 1.9%로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기독교 인구가 월등히 많다.

사실상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는 핀란드 내에서 초등학교에서 기독교를 주제로 한 내용의 합창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벌어진다는 게 우리에겐 쉽게 납득이 안 된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핀란드는 지난 2004년 '평등법'이라는 이름의 '포괄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차별 및 피해자 금지를 규정한 3장 8조에 "국민은 나이, 출신, 국적, 언어, 성적 지향 등 개인과 관련된 그 밖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돼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핀란드에서는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재판에 회부되는 등 이전과 다른 기이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5년간 국회의원을 한 페이비 래세넌 씨는 결혼과 성에 대해 전통적인 기독교 신념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다시 그를 "혐오 표현"을 이유로 기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20여 년 전에 집필한 저서에서 성 소수자의 행위를 '죄'라고 한 것이 동성애자를 모욕하고 성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 동성애를 비판하한 표현에 대해 "범죄"라고 단정했다. 단적으로 말해 인간의 기본권리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차별금지법' 앞에서 무력화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핀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겐 지리적 거리감만큼이나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인 나라에서 성경이 무력화되고 복음이 압살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불원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미션스쿨이라는 걸 알고 입학한 고교 학생이 학교 측의 '채플' 의무화로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인권위가 학교에 시정을 권고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 지금은 권고일 뿐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법적 강제로 바뀌게 된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겉모양은 어느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치장돼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수한 역 차별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반 인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 법은 '젠더'가 지배하는 세상을 위한 '불쏘시개'로 쓰이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 여러 나라들의 사정도 핀란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기독교 정신으로 수 세기동안 발전해 온 서구 여러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에 볼모잡혀 기독교 정체성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 하나만 남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한국교회의 손에 우리나라와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다.

대한민국 승인 외교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29)

이 호 목사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대표

제 6 장 대한민국의 개혁, 자유와 번영의 조건

대한민국 승인 외교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는 없었다. 미국도 유엔 총회의 결과를 보아가면서 승인하고자 했다. 최초로 한국에 부임한 존 무초도 "미국 대사"가 아닌 "미국 대표"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1948년 9월 21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제 2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승인받는 일이었다.

전망은 불투명했다.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권 블록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 블록도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구한말에서 대한민국 건국 초기까지의 역사를 들추어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에 다소 유감을 갖게 된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은 물론, 6.25 전쟁에서도 한국을 포기하자고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미국이 우리 임시 정부의 승인을 끝까지 거절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영국의 입장을 의식해서 였다.

건국 이후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영국을 성토한 대목도 있다. 그러나 6.25 전쟁 때 영국을 위시한 영연방 국가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린 것은 분명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 세상사에는 이렇게 양면(兩面)이 있기 마련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할 한국 대표단의 단장에 장면(張勉)을 임명했다. 당시에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던 조병옥(趙炳玉)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무명(無名)인 장면이 단장으로 발탁된 것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호탕한 조병옥이 실수할 것을 이대통령이 염려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동시에 장면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에, 가톨릭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있다. 어쨌든 장면의 발탁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 외에도 김활란, 장기영, 모윤숙, 정일형이 파견되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발한 외교 사절의 기록을 읽어보면, 눈물과 웃음이 교차한다. 훌륭한 애국자들이 참 애쓰셨구나, 하는 생각과 그때는 정말 못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동시에 든다.

이 나라 최초의 여권에 대한 묘사가 그렇다. 일단 여권 자체도 한국에서 만들지 못하고 일본에서 인쇄해야 했다. 1948년 9월 9일 정일형 박사가 김포공항을 떠나는 노스웨스트 항공기 트랩에 올랐을 때, 그의 손에는 가로 세로 50센티미터의 초대형 여권이 들려있었다.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널빤지 수준이다. 흰 장지에 "대한민국 여행권 (大韓民國 旅行券)"이라는 글씨를 붓으로 썼으니, 서예 작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경유지인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출입국 관리는 정일형의 여권을 보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여권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다. "출입국 사무를 오래 보아왔지만 이런 여권은 처음 본다. 이들 여권을 나에게 팔라." 우리 대표단은 "이 여권을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대답했다.

널빤지 사이즈의 서예 작품 같은 여권을 들고 우리 대표단은 파리에 도착했다. 수십 개 국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설명하고 승인을 호소했다. 하지만 공산권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소련 대표 비신스키는 독설가로 유명했다. 그는 한번 발언을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소유자였다.

비신스키가 지휘하는 공산권의 전략은 필리버스터, 곧 끊임없는 발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공산권 나라들이 서로 짜고 순서를 정했다. 한 대표가 발언을 끝내면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다른 대표가 발언한다.

계속된 발언의 내용은 이승만과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이었다. 한번은 연설하던 비신스키가 조병옥을 보고 흥분해서 소리쳤다. "저기, 이승만의 개가 앉아있다." 조병옥도 만만치 않았다. 즉시 비신스키를 가리키며 받아쳤다. "저기,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다." 국제회의가 개판이 되어 버린 셈이다.

공산권의 지연 전술은 성공적이었다. 몇 시간이고 반복되는 똑같은 소리에 지친 다른 나라 대표들은 회의 도중에 밖으로 나가버렸다. 차도 마시고 쉬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보니 막상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면 참가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이었다. 우리 대표들은 출입문을 지키며 제발 나가지 말고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몇 시간씩 똑같은 소리를 듣느라 지친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9월에 시작된 총회는 어느덧 12월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의 마지막 날을 남겨놓고 있었다. 모두들 기진맥진해 있는데, 단장인 장면 박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동안 수고들 많았소. 내일 새벽 3시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성당에 가려는데, 누구 동반할 사람 없겠소?"하고 좌중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지쳐버린 일행 중에서는 누구 한 사람 선뜻 나서지 않았다. 장면은 "그럼 내가 3시에 전화를 걸 테니 같이 갈 사람은 따라 나오도록 하시오."하고 말문을 닫았다.

새벽 3시에 단잠을 깨운 장박사의 전화를 받고 동행 길에 나선 것은 시인으로도 유명한 모윤숙(毛允淑)이었다. 때마침 비가 온 뒤끝이라 새벽 거리는 몹시도 쌀쌀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이렇게 동반해 주시니 참 고맙소. 새벽에 기도드리는 습관을 가지게 되니 마음도 시원해지고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되오."

장면은 쌩 조셉 성당으로 가는 길에 모윤숙에게 그렇게 말했다.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던 그는 성당에 들어가서 경건히 무릎을 꿇고 기도에 몰입했다. 30분이 지나도 장박사는 기도를 계속하였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모여사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장면의 기도는 거의 한 시간이 지나서야 끝났다.

모여사가 아픈 다리를 추스르며 겨우 일어섰는데, 장면이 또 다시 말했다. "이 근처의 성당에 가서 더 기도합시다." 모윤숙은 "전 무릎에 아파서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장면이 말했다. "그래, 큰일을 눈앞에 두고 그것도 못 참아 어떻게 하오."

나라를 위한 큰일을 앞두고 다리 아프다고 사정할 수는 없었다. 하는 수없이 모윤숙은 또 다른 성당으로 들어갔다. 또 한 번의 기도를 마치고 회의에 참석했다.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이 넘어서 계속된 총회에서 비신스키가 기세 좋게 등단했다. 우리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유엔 한국 위원회 활동을 "서울에서 밤마다 술에 젖고 노래에 흥청거리는 생활"이라고 표현하면서 "수십 개월간 유엔 예산을 20~30만 달러나 낭비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눈을 번득거리고 팔을 들어 휘두르려는 자세를 보이던 비신스키가 별안간 목이 메더니 15분 만에 내려가 버렸다. 몇 시간씩 끄떡없이 방해 연설을 해 온 그가 갑자기 퇴장한 것이다. 비신스키의 예상치 못한 퇴장으로 총회는 즉각 투표에 들어갔다. 마침내 한국은 찬성 48, 반대 6, 기권 1표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

3개월 내내 효과적으로 회의를 막았던 비신스키는 왜 갑자기 마지막날 목을 움켜쥐고 퇴장했을까?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갑작스런 치통과 성대 결절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임을 안다.

유엔의 승인이 훗날 이 나라를 살렸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합법 정부를 공격한 북괴에 대한 반격을 역시 유엔이 결의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승인된 것에는 민족사적 의의도 있다. 대륙의 귀퉁이에 위치해서 중국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사대외교를 지속했던 우리나라가 당당한 독립국으로 세계와 교류하게 된 것이다. 유엔 승인 이후로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외교관을 보냈고 우리 역시 외교관들을 파견했다. 이 모든 일이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졌다. 〈계속〉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도서문의 010-6801-8933

연탄 기부 관심 감소, 취약계층 겨울나기 더욱 어려워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완연한 겨울 날씨로 접어드는 가운데 연탄 기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까지 줄어들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연탄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면서 기부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연탄 사용 가구 수는 이후 17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아직 7만4167가구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 충북,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탄 가구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중 45%가 독거노인 및 장애가정 등 소외가구, 42%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 취약층에게 연탄은 여전히 필수적인 난방 수단인 것이다.

이에 연탄은행은 기부받은 연탄을 전국 31개 지역은행을 통해 에너지 취약층에 전달하는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탄 기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취약계층 겨울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올해 10~11월 두 달간 후원된 연탄은 총 50만9940장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만9384장이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41.3% 급감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인구가 줄면서 연탄 기부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물가 인상으로 연탄 가격마저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연탄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60)씨는 "고등학생 때까지 연탄을 땠던 기억이 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다"며 "요새는 연탄을 어디서 파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박모(30)씨도 "예전엔 연탄 봉사 소식을 전하는 사진을 자주 봤었던 것 같다"며 "요새는 식당이 아니고서야 연탄 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탄은행 관계자는 "요새 날씨가 추워지는데 경기 상황이 썩 좋지 않다 보니 후원 역시 줄어든 상황"이라며 "올해 동절기가 특히 걱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연탄이 텔레비전(TV)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여겨지면서 연탄 기부에 대한 관심마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루리 기자

한 주택에서 주민이 연탄 보일러의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뉴시스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2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2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MGBC 다문화복음방송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기나 국가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목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반) 8학기	· 세례를 받은자 ·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야/토요반)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와 협력교육기관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사회복지학,상담학,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평생교육원)

허리 무릎 관절통증 大 무료체험행사

1개월 이상만 복용하셔도 재구매율 85% 이상 ⬆ 무료체험 후 효과 있을시만 주문가능합니다.

무료체험기회

※ 계단보행이 불편하신 분
※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신 분
※ 무릎, 허리, 발목, 목등이 불편하신 분
※ 이번 기회에 관절건강을 찾고 싶은 분

※ 꼭 체험 후에 구입하십시요 ~

체험 후 효과를 보신 분만이 구매하실 수 있고 중복체험은 불가합니다.

식품제조허가 : 제 2020-0029046호 특허등록 : 제 30-1204880-00-00호

(주)관절건강에서는 한방연구에만 40여년을 종사한 한방 제품을, 각종 관절의 통증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자로 주소, 성함을 보내주시면 꼭 무료체험용을 보내드립니다.

10일분 무료체험 (주)관절건강 꼭~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 택배비 4,500원만 착불! 가격도
주문은 꼭 문자로만!
02) 2268-0719 **010-6335-0165** 저렴합니다!

경기 예술 신학원 개원(학부)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개원 목적을 둔다

학장 **장대수** 박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 (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경력 및 출연작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 (주연)
싸르뜨르작, 이강렬연출
출구없는 방 출연 (주연)
세익스피어 작. 오셀료 출연 등

사무처장 **경기만** 목사

학력 및 경력
한동대학교 영문과 졸업
대구카톨릭 교육대학원
장신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수 **유제상** 목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연극과 졸업
한영실천신학 대학원 졸업
전 KBS 드라마 성우
연극출연작
육혈표 강도

교수 **강두남** 박사

학력 및 경력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
개신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구약전공)

학 과	연극선교학과
지원자격	고졸이상학력
종 교	기독교세례자
모집인원	약간명
원서지원	25년 1월부터
개강및수업	3월 첫주
학 제	4년

토요일만 집중수업 졸업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면 개혁신학교 신학 연구원에 입학함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지구촌 복음 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사랑의 교회 내

“영적·도덕적 하늘 매우 어두워… 북극성 같은 사람 필요해”

신간 ‘영혼의 사계절’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는 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로 존재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범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면 그 선택은 나의 뜻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다.

이어 “내가 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의 파이프가 되어 나로 인해 남이 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와서 복을 받자’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산해진미가 차려진 호화스러운 식탁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담긴 소박한 식탁으로 인도하셨다.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은 오천 명분의 밥이 쌓여 있는 곳이 아니라, 밥 속에 사랑이 흐르는 그런 밥상 공동체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영적 모세로서 무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가나안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애굽을 버리는 유월절, 하나님의 율법을 채우는 오순절, 이 두 절기는 그들의 삶을 가능케 하는 영적 순환 장치였다. 이 장치가 잘 돌아갈 때 그 나라가 융성했고, 그렇지 않을 때 패망했다는 이야기,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 만약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회적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참 성공이 아니다. 그 무엇을 했다고 해도 사랑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고전13:8). 사랑을 배우는 것이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삶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해도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으면 그 세월은 낭비된 세월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우리의 세월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면 하루가 천 년이 될 수도 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계수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시간을 카운트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시간에 관한 첫 번째 지혜다”며 “다니엘의 삶은 말씀의 빛과 기도의 불과 거룩한 삶이 균형을 갖춘 삶이었고, 그로 인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었다. 이 시대에는 기술이란 하늘은 찬란하지만, 영적·도덕적 하늘은 매우 어둡다. 그럴 때 옳은 곳이 어딘지 알려주는 북극성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목사님, 바쁜 일정 때문에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요?”

「월간목회」 12월호, ‘목회자의 읽기’ 특집

「월간목회」는 12월호가 ‘목회자의 읽기’를 특집으로 다뤘다.

「월간목회」는 “목회자는 책을 통해 얻는 지혜와 통찰로 설교와 상담에서 더욱 넓고 깊은 시야를 제공하며,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지혜를 갖출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목회자가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시간 부족을 이유로 독서를 게을리하는 것은 합당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바쁜 중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듯, 목회자의 읽기도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우선순위를 높이는 유일한 길은 ‘읽기’가 목회자에게 있어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인식되는 것”이라며 독서의 필요성과 유익에 대한 목회자들의 조언을 소개했다.

정국환 목사(제자들선교회 익산지구 대표)는 “AI 시대에도 독서는 비판적 사고, 공감, 창의성을 발전시키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성을 길러 준다”며 “독서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메모를 남기는 습관, 여러 분야에 걸친 폭넓은 독서 등은 검증된 효과적인 성장 방식이다. 결국,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독서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김종원 목사(은혜의동산교회 담임)는 “교회 내에 ‘어,울림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성도들과 성경은 물론이고 여러 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다”며 “최근에는 열 명의 목회자들과 1천4백 쪽에 달하는 톰 라이트의 책을 13주 동안 함께 읽으며 완독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신학 서적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에도 도전하여, 현재 도스토옙스키 전작을 함께 읽는 독서 모임을 진행 중”이라며 “이렇듯 ‘함께 읽기’는 나의 독서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함께 읽기는 단순히 독서를 위한 방법론이 아니다. 서로의 사유와 성찰을 나누며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목회와 신앙의 확장을 이끄는 힘”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장석환 목사(하늘기쁨교회)는 “책 읽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는 과정이며, 모든 책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다른 모든 계시의 기준이 되며, 일반 계시는 책, 자연, 역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며 “그러므로 모든 책은 유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양하게 책을 접함으로써 신앙의 성숙과 삶의 폭넓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모중현 목사(열방교회 담임)는 “독서는 목회 사역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 주며, 내면의 단단함을 더해 주는 기둥이 된다”며 “하나님과 사람, 세상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면서 균형 잡힌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민음사, 이탈리아의 국민 소설 ‘표범’ 출간

19세기 시칠리아 귀족 사회와 혁명의 격동기, 역사를 품은 소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국민 소설로 꼽히는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의 표범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으로 출간됐다. 이 작품은 1958년 첫 출간 이후 이탈리아 근대 최초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탈리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소설의 배경은 19세기 중반, 분열된 이탈리아 공국들을 통일하려는 가리발디 혁명군의 ‘리소르지멘토’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다. 이야기는 시칠리아 귀족 가문 수장이자 영주인 돈 파브리초 살리나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귀족 중심 사회의 몰락과 신흥 부르주아 계층의 부상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돈 파브리초는 귀족 체제가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닫고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인다. 가리발디 군대가 시칠리아에 상륙하고, 그의 조카 탄크레디 팔코네리가 혁명군에 합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직감한다. 탄크레디는 살리나의 딸 콘체타와 약혼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전쟁 후 신흥 부호 돈 세다라의 아름다운 딸 안젤리카와 사랑에 빠진다. 살리나는 자신의 딸이 탄크레디의 야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을 알며,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

소설의 원제 ‘일 가토파르도’(Il Gattopardo)는 이탈리아어로 서벌(serval)을 뜻하지만, 해외에서는 더 잘 알려진 맹수인 ‘표범’으로 번역됐다. 이는 작품의 상징성과 대중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람페두사는 자신의 증조부 줄리오 파브리초 디 람페두사를 모델로 삼아 집안 이야기를 재구성하며 이 소설을 완성했다. 그의 자전적 요소가 짙게 깃든 작품으로 평가된다.

표범은 문학적 성취를 넘어 영화와 드라마로도 확장됐다. 1963년, 루치노 비스콘티 감독이 제작한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으며, 내년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이다.

“우리는 표범이자 사자였다. 우리를 대신하여 올 자들은 자칼과 하이에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표범, 자칼, 양 모두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믿을 것이다.”

이 문장은 소설이 담고 있는 귀족 사회의 몰락과 시대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이나래 기자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누가복음 12장과 13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말씀한다. 누가복음 13장 18-21절에 나타난 두 개의 비유는 앞부분의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회개와 치유, 표적과 사단의 패배에 대하여 폭넓은 차원으로 그의 나라가 침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한쌍을 이룬다. 남성을 나타내는 겨자씨 비유와 여성을 나타내는 누룩의 비유는 예수님의 초반부의 여행 기사의 끝을 맺는다. 누가복음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1-33절과 마가복음 4장 30-32절과 병행을 이룬다. 마태복음의 두 비유는 “마치 사람이 ~와 같다”는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사용한다. 마가복음의 겨자씨 비유는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수록되었다. 마가와 누가 본문에서 일치하는 단어는 네 개이며, 문장 안에서의 배열도 서로 다르다. 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르게 비유를 나누어 이야기할까?

은성수 ‘누가복음에 나타난 비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받던 이들,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던 이들, 마을 밖으로 내쫓겨 살아야 했던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 스스로를 버려진 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며 회복시켜 주셨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딛고 있던 땅의 정복자(지배자)로 오시는 걸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야. 내가 성주로 있는 이 성읍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라고 깃발을 올리는 거지. 하나님은 나와 너에게 단 한 번도 불완전한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 완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위에, 그 생명 안에, 그 진리 곁에 있으면 완성돼 가는 거야. 성화의 고귀함과 그렇지 못한 나의 비천함을 모두 인정할 때 우리는 완성되어 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자신으로 인한,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근거로 한 자신의 특별함, 우월성, 자랑거리가 된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 거야.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한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그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이주헌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

성령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호기심과 갈급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 거룩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할 때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면 옆 사람들이 방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질겁해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성장학을 가르치신 맥가브란 박사라는 분에 의하면, 그런 큰 통성기도나 은사주의적인 예배가 초신자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김영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날 새롭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8)

결국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가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면 결국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지옥으로부터도 실제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교리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조건부 죄 사함은 결코 죄 사함이나 칭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모든 인류에게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진실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최종적인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미덕이나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생각은 중보자의 영광을 훼손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만 속하는 것을 사람의 미덕으로 가로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을 대신 올려놓고, 사람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답변 3.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란 넓은 의미로 쓰일 경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행하시고 고난 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책에서 놓임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순종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납되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만 하는 완전한 내적 의로움으로 대신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완전한 순종을 이행한 것처럼 그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전가된 의에 대한 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전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18절에서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형벌로부터 건짐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형벌을 감당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순종하시는 일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일이 꼭같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순종하시는 일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형벌을 감당하시는 일과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틀림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형벌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까닭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형벌을 감당하신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속죄를 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책을 제거할 뿐이고, 그럼으로써 처음 창조된 처음 순간에 아담이 처해 있던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타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담이 아무런 순종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사람으로 존재하자마자 영원한 생명과 확고부동하게 행복한 상태를 그에게 상급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아담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에 상급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상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 있어야만 상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우리의 죄책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형벌을 감당하는 것 외에도 무엇인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는 먼저 검증해 보시는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지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인의 죄가 속해졌을지라도 적극적인 의로움이 죄인에게 없는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을 죄인에게 하사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은 결코 충분하게 옹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순종의 조건을 채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철회하셔야만 할 것이고, 약속된 상을 주셔야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율법에 굴복시키시고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크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바이블지식IN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계획을 따라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다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과 일정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시편 18:30).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때 또한 완전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보다 덜 어려워지며, 심지어 기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이사야 40:31). 그러나 우리는 사람일 뿐이며, 모든 것을 지금 즉시 요구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만군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즉시 응답받기도 하며, 그 사실은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그럴 때 우리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무슨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빌립보서 4:6).

신자의 염려는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며, 이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에든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감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함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 중에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한 확신 안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사건, 상황에 대한 언제나 완전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통제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으시며, 누구에게도 영향 받지 않으시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언제나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이사야 46:10).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한 때에 일하실 것을 기다릴 때 우리가 인내와 확신으로 기다리게 해줄 것입니다.

갓퀘스천스 제공

뇌치유상담

영적 체험, 유전자나 뇌 화학물질에 영향을 받는다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손매남 박사

인간의 영성은 본능이며 유전자에 의해 발현된다. 영적 체험을 만드는 유전자는 이미 갖고 있으며. 그것은 곧 우리가 영적 본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다양한 종교는 이 영적 본능의 발현인 셈이다. 대부분의 영적 체험은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고 싶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일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고뇌, 고통이 영적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은 삶의 목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나 신앙심이 단순히 스트레스나 좌절의 고통, 희열과 기쁨 등 여러 특정한 감정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목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유전자는 특정한 뇌 화학물질의 작용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영적 체험의 한계점을 형성한다. 인간은 뇌 속 화학물질들 간의 상호작용의 지배를 받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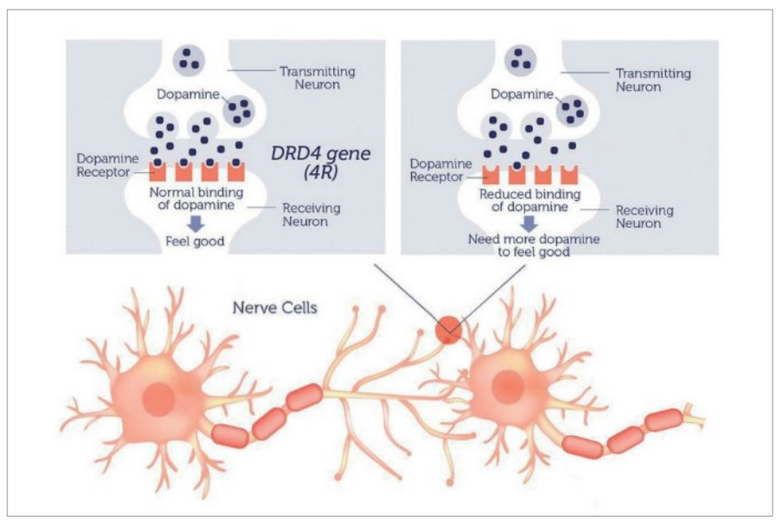
또 유전자는 영적 체험에 기여한다. 후성유전학에서는 유전자가 반드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경향을 갖게 될지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의 범위를 만들어낼 뿐이다. 유전자가 특정한 배열을 가졌다고 해서, 또는 갖지 않았다고 해서 영적이거나 영적이지 않다고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유전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유전자 생물학)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 환경(그 사람의 성장환경)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유전자의 역할은 영적 체험의 기준점 같은 걸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유전적으로 영성에 끌리는 경향이 있으면, 비교적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교회로 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다. 또 반대로 교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성을 갖고 유전적으로 태어났다면, 엄청난 환경의 노력이 있어야 교회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전자는 특별한 뇌 화학물질의 작용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 5-HT2A 수용체도 영적 체험에 기여한다. 신경학적으로 영적 체험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비적 체험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취리히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로서 감정의 화학작용을 평생 연구한 폴렌바이더는 약물로 된 화학물질로 유도해 낸 영적 체험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신적 경험이 유발하는 생리적 현상들을 관찰하였다. 그는 세로토닌과 특정한 세로토닌 수용체가 신비로운 체험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로토닌 5-HT2A 수용체는 스웨덴의 과학자들이 신유전자 또는 영성의 유전적 소인을 찾을 때 밝혀낸 것으로 세로토닌 수용체의 사촌 격이다.

신유전자를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로토닌 시스템이다. 세로토닌 시스템은 기분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엑스터시는 세로토닌을 대량 분비시켜 희열감을 느끼게 해 준다. 프로작, 팍실, 졸로프트 등 항우울제는 보다 완만하게 작용해 기분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기능들이 같다. 그리고 환각제는 아빌라의 성테레사 수녀가 한 것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 준다.

인간은 영적 체험을 만드는 유전자를 이미 갖고 있으며. 그것은 곧 우리가 영적 본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pexels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인 DRD4는 영적 체험에 기여한다. DRD4 유전자의 특정한 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아-초월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양을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적 체험에서 세로토닌의 역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알아보기 위해서 세로토닌의 수용체 활동을 측정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로토닌 5-HT1A라는 수용체 유전자이다. 세로토닌 시스템은 영적 체험의 생물학적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전자의 차이는 사람마다 영성의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인 DRD4도 영적 체험에 기여한다. 과학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유전자나 뇌 화학물질을 찾기 시작하면서 곧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로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 준다. 보스턴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페트릭 맥나마라와 다른 연구자들은 도파민 조절에 관여하는 '영적 유전자'가 있다면 도파민은 뇌 부위들을 자극하고 영적 체험, 초월적 경험, 신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대뇌변연계와 전전두엽과 같은 뇌의 특정 부위에도 도파민 수위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부위는 온갖 복잡한 기능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기능들은 신앙심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감지하고 의식에 관여하는 등 보다 기본적인 능력을 지원한다. 뇌의 대뇌변연계는 놀라움, 기쁨, 흥분, 초월적 느낌, 깊은 슬픔 등 신비주의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감정들과 연관이 있다. 전전두엽보다 복잡한 사고, 반성, 주의 집중 등과 관련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 부위가 기도와 명상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파민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영적인 느낌과 종교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문제는 영성과 도파민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두아트에 있는 호프 시립병원의 데이비드 커밍스와 유전학 연구팀은 특정한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인 DRD4가 영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도파민 수용체는 사람마다 다르다. 유전자의 차이가 신에 대한 믿음 여부에 영향을 준다. 도파민 수용체는 전두엽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 부위는 많은 고난도의 뇌 기능을 한다. 영성은 인간 뇌의 고차원적 기능의 백미이다.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인 DRD4 유전자의 특정한 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아-초월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특정한 유전자를 영성유전자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만, 영성 차이의 상당 부분이 이 유전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바(1925)나 스필카(2003) 등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또는 화학적 작용이 모든 신비로운 체험의 원천이다"라고 하였다. 딘 해머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VMAT2라는 신유전자를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콜린스는 영성유전자는 없다고 말하고, 신께 향하는 인성을 개발하는데 수많은 유전자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지만, 그 밖에도 너무 많은 요소가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대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건강상식

치실 사용 습관화로 충치를 예방하자

분당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치과에 갔다가 충치가 8개나 된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에도 치아건강에 관심이 많아 회사에서도 칫솔을 갖고 다니며 항상 칫솔질을 하는 습관이 있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칫솔질을 잘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사이에 충치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칫솔질을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닦지 않고 대충해서 충치가 생겼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칫솔질을 잘한다 하더라도 치아와 치아가 붙어있는 면은 잘 닦기가 어렵다. 또한 이 부위는 일반인이 거울로 살펴보더라도 심하지 않으면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치아 사이에 생긴 충치의 경우에는 치료 시 삭제해야 하는 치아의 양이 많고 대부분 양쪽 모두에 걸쳐서 충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예후도 씹는 면에 국한된 충치보다 좋지 않아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확률이 더 높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3.3.3 법칙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이 법칙만 잘 지키면 충치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연히 이 법칙대로 칫솔질을 잘하면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

치아와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실을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어려서부터 칫솔질에 대한 교육만 받았지 치실사용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칫솔질의 목적이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것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고 치실을 같이 써야한다.

처음 치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우 번거로울 수 있다. 더군다나 칫솔질조차 10초 만에 해결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실이 매우 불편한 도구일 수도 있다. 아니 칫솔질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그렇다. 그렇지만 꾸준히 치실을 사용하면 그 효과에 충분히 놀라게 될 것이다.

국내에선 치실사용에 대해 잘 들어보지 못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때로는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사이가 벌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치실은 칫솔질의 보조도구가 아닌, 칫솔질과 함께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치실과 칫솔질을 함께하면 치과에서 뜻밖의 거액을 치료비용으로 내야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경섭 뉴연세치과 원장

교회오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Salvation by Faith)(3)

죄책에서 구원받은 자는 또한 두려움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불순종한 아들이 부모에 대하여 갖는 두려움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예로서 갖는 두려움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할 때. 이제는 그분을 무서운 주가 아니랄 관대한 아버지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다시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이 친히 저희 영으로 더불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그들은 우리의 기업에 보장이 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엡1:13).

그러므로 저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부은 바, 된 것입니다.(롬5:5).

그리하여 우리는 (아마도 늘 그런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앙에 의하여 저희들은 죄책에서 구원받은 동시에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 하지 아니하느니라"(요일3:15)고 외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 믿는 자마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지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이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 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나"(요일3:7-9)하였고, 또 요한일서 5장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 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 하느니라" 하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①어떤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범죄 치 않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지만 믿는 자의 마음은 그 죄가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어떤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의지는 모든 죄에 전적으로 반항하며 또한 아를 무서운 독과 같이 미워하는 까닭입니다.

③어떤 죄된 욕망에 의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단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며,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결한 욕망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죽이게 되는 까닭입니다.

④또한 그는 행동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성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는 별개의 것이며, 죄는 의지의 작용으로 범해지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의 작용이 없이 연약성만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 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범죄 한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범죄 치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는 현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의 구원과 그 죄의 결과에서의 구원을 일컬어 종종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광의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를 믿는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죄책과 형벌에서의 해방을 뜻하며, 또한 그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진실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골3:4)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즐겨 사모하며 이에 의하여 장성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 마침내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III. 이상에서 설명한 것에 대해 흔히 나오는 반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는 것은 성결과 선행을 반대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극히 간단한 답으로도 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신앙을 성결과 선행에서 분리된 것으로 본다면 그 말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신앙은 성행과 모든 성결을 낳게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충분히 생각한다는 것이 무익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대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라는 반문은 그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답변합니다. 믿음을 외치지 않는 자가 곧 율법을 폐하는 자입니다. 즉 저들은 직접 성경 본문의 정신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한함으로써, 또한 간접적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이 믿음을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계속〉

창골산 봉목사

향유옥합

잡초를 뽑으면 거름이 되듯

밭에 난 잡초는 뽑으면
그것으로 거름이 되듯이

사람의 고민도
그 잡초와 같은 존재이다.

뽑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무성하여
곡식을 해롭게 하지만
서둘러 뽑아 버리면
곡식은 잘 자란다.

그리고 뽑은 잡초는
따로 거름이 될 수 있다.

논과 밭에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뽑아버릴 힘은 있지 않은가!

-채근담

농사를 지어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반드시 너무 많이 자라기 전에 뽑아야 합니다.

더욱이 꽃씨를 맺기 전에 뽑아야 합니다.

씨를 맺으면 잡초를 뽑을 수 있어도 씨앗이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의 잡초나 죄도 자라나 씨앗을 맺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사랑이 이룬 기적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에게만 경배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된 안이숙 여사가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안이숙 여사는 사형 언도를 받고 옆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만주 여자가 지르는 괴성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주 여자는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남편을 죽이고 시신을 토막 내어 압록강에 버린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외간 남자의 아이를 낳았는데, 취조 받던 중 이 아이를 빼앗기자 실성해서 날마다 괴성을 질러댔던 것입니다.

안이숙 여사는 간수에게 만주 여자를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감방으로 옮겨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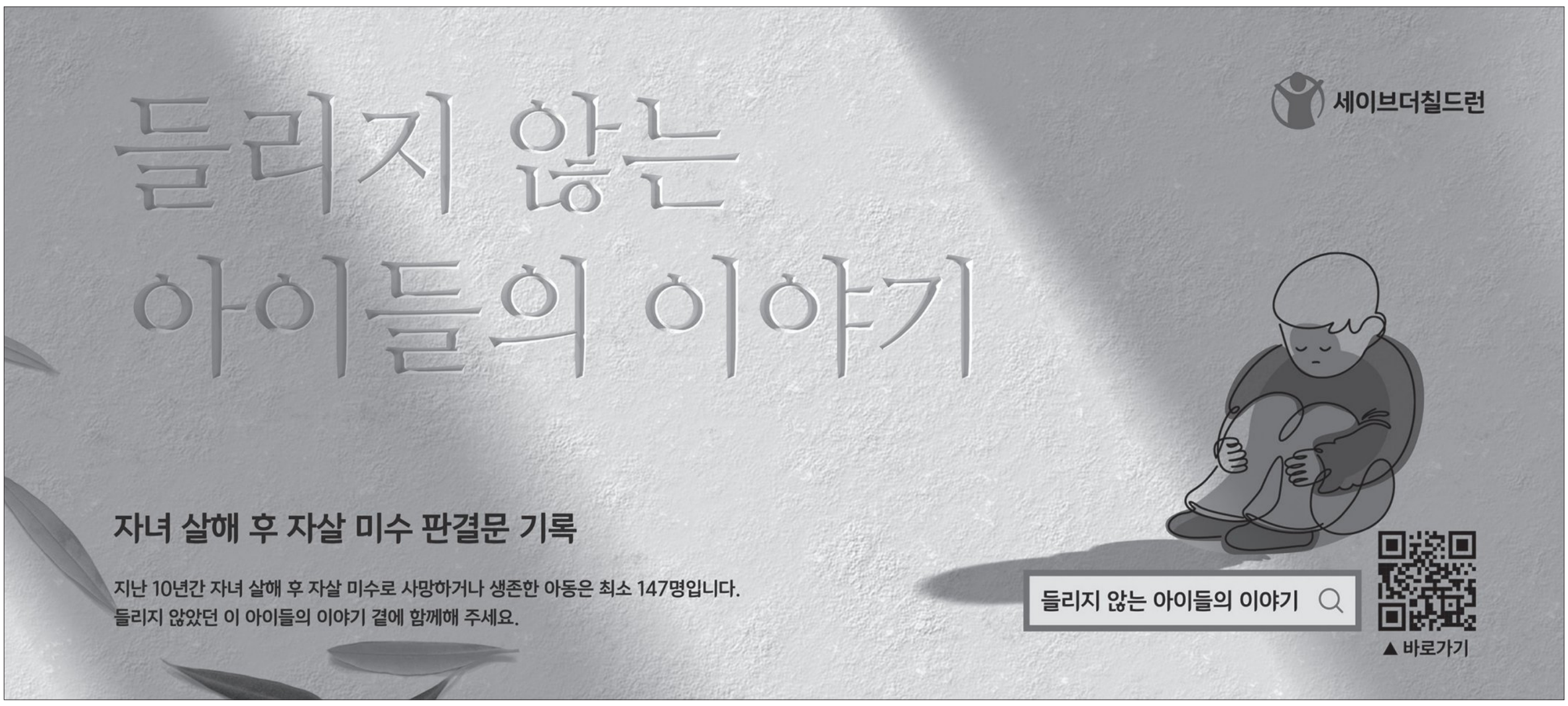
그 여자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몸에서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 경계와 미움과 원한의 눈초리로 안이숙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이숙 여사는 동상에 걸려 터지고 부은 그 여자의 발을 끌어 자신의 가슴에 넣고 녹였습니다.

그리고 만주 말로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해요."라고 했습니다.

안이숙 여사의 이 같은 사랑에 만주 여자는 점차 제 정신을 찾았음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닷컴 | RED COMPASS 선교회 제공



내가 찬양을 인도하기 전과 후, 예배 때 회중석에 앉아 있는 이유

Mark Benjamin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Raleigh에 있는 지역 감리교 교회의 예배 인도자입니다.

저는 거의 6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섬겼고, 최근까지 이 교회에서 항상 해오던 대로 찬양인도 전에 강대상 바로 뒤에 있다가 찬양하러 무대에 올라갔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기도자 등이 무대 위로 입장하고, 그 후에 찬양팀이 무대에 서고, 찬양을 인도한 후 우리는 무대 왼쪽으로 나와 있다가, 설교자가 "기도합시다"라고 말할 때 무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배순서 간의 부드러운 연결과 무대와의 근접성에서 그러하며, 여러 명의 찬양팀 멤버들이 좌석에서 무대로, 다시 좌석으로 오므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올라가는 이 방식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 측면이 있어 이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Thomas Long이 쓴 '설교의 증인(The Witness of Preaching)'을 읽고 있었고, 무대 옆쪽에서부터 무대로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설교자에 관해 말하자면) 강단 근처 좌석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만, Long은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 측면에서 만들고 싶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배 지도자들이 물리적으로나 건축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든, 신학적으로 그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 문을 사용하든 저 문을 사용하든, 회중석의 중앙 통로를 따라 내려오든, 그들의 좌석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들어오든 간에, 지금은 예배의 인도자일지라도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방법을 바꿀까요? 우선, 저는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떠올려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대개 목회자와 예배 지도자들은 종종 하나님 안에서 보여야 할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예배 인도자들은 회중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직자의 전문화로 보수를 받는 전문사역자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중과 함께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둘째로, 저는 (자원해서 섬기든, 사례비를 받거나 받지 않고 섬기든) 찬양팀을 이끄는 우리 음악사역자들이 설교를 듣지 않는 행동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설교의 작은 조각을 들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옆쪽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전체 예배에서 이탈합니다. 솔직히 제 자신이 그랬었고, 이제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회중 위에 있지도, 분리되어 있지도,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회중 안에 있고 회중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속한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이끌 수 있습니다.

자원해서 섬기는 찬양팀 싱어들과 음악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이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예배와 찬양을 더 잘 이끌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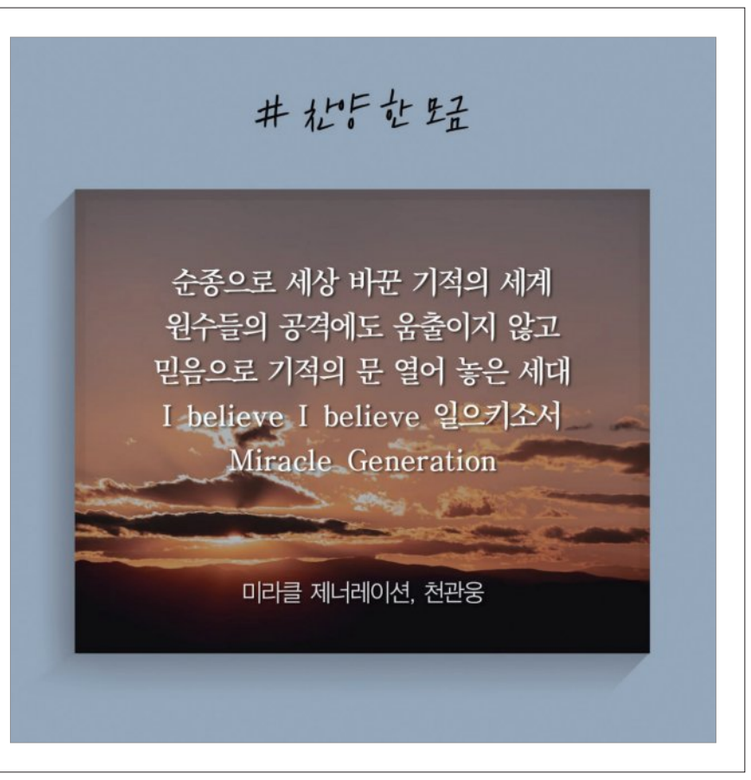
◈Mark Benjamin
Raleigh에 있는 Asbury UMC의 예배 예술담당 목사입니다. 그는 기독교 리더십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전에 Oregon에 있는 George Fox University에서 예배 예술과 제자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최근 Asbury Seminary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Erin과 결혼하여 슬하에 Silas, John-Ezra, Myla, Rowan 및 Isaac의 다섯 자녀가 있습니다.

Blended Worship에 관한 논쟁 (2)

Vince Wilcox

지난번 기사에 소개한 Blended Worship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7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누가 이러한 새로운 예배형태에 동의하는지뿐만 아니라 누가 동의하지 않는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음악적인 측면에서 아이들, 부모 세대들 및 조부모 세대들에게 다가가기 쉬운지 판단해야 한다. 당신이 참석하는 교회의 연령대 구조가 교회 주변의 지역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파악하라. 당신의 예배 음악 스타일이 수용적이고 매력적이라면 정말 훌륭하다! 그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 세대적 단절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있는 곳에 안주하여 엄청난 사역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



겸손하고 자연스럽게 시작하라. 가장 간단한 예는 전통적인 찬송가에 CCM 같은 현대적인 찬양을 섞거나, 또는 그 반대로 CCM에 전통적인 찬송가를 섞을 수 있다. 교회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How Great Thou Art)"를 자주 부른다면 그 찬송가를 Chris Tomlin의 찬양 "위대하신 주(How Great Is Our God)"와 연결하여 부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위대하신 주(How Great Is Our God)"가 즐겨 불린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How Great Thou Art)"의 후렴구를 경과구로 사용하여 찬양을 할 수 있다. 각 파트를 부르라고 강요하지 말라. 어떤 가사와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보고 거기서부터 blended worship을 설계해 나가라.

진정성으로 음악적인 스타일을 초월하라. 성가대 지휘자나 예배 인도자가 회중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곡을 선곡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정말 어색하다. 그러므로 네모난 못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기보다, 현재 섬기고 있는 악기 연주자와 싱어들에 더해 몇 개의 악기만 더 추가하여, 스타일만 조금 달리한 찬양을 회중에게 소개하도록 하라. 찬양을 소개하면서 왜 이 찬양이 나에게 의미 있는지와 어떻게 마음에 다가왔는지 공유하라. 회중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면 회중은 기꺼이 당신과 함께 blended worship의 여정을 떠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찬양의 스타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그 찬양을 소개하고 이끌어가는 정신적 의지이다.

음악을 사용하여 세대를 잇는 다리를 만들라. 당신이 특히 현대적인 회중이라면, 교회에서 사랑받는 장로님에게 왜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예배에서 그 찬송가를 조심스럽게 당신의 음악적인 스타일을 섞어 인도하면서 그 장로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라. 마찬가지로,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꽤 전통적인 교회라면, 청년에게 특정한 워십송이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라. 그런 다음 찬양팀이 어쿠스틱 기타와 같은 추가 악기를 사용하여 회중에게 그 찬양을 소개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찬양을 추가하라. 교회에 찬양을 소개할 때 이번 해 또는 내년에 여러 번 부를 계획을 세워 그 찬양이 공동체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도록 하라. 회중이 부를 찬양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찬양 목록 큐레이션을 통해 예배를 인도하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

강압적으로 음악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 성도들을 놀라게 할 만큼 다양한 곡을 더하거나, 다양성을 강조하고 가르치려는 유혹을 물리치라. 그 대신, 예배프로그램 스타일의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야 한다. 같은 찬양을 하면서 파이프 오르간의 반주에서 날카로운 일렉트릭 기타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 그 찬양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회중 또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적 맥락이 당신이 준비한 찬양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라.

음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고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경배받는 송아지보다, 그 소가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 더 신성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큰 선을 위해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도록 부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전 9:19-23)

◈ Vince Wilcox
2014년부터 2020년까지 Discover Worship의 총괄 관리자로 재직했다. 기고 편집자로서 변호사, 마케팅 담당자, 기업가, 음악가 및 제품 제작자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예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도록 꾸준히 돕고있다. Discover Woship에서의 직무 외에도 Trevecca Nazarence University의 음악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전임이사이며 지역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앙’과 ‘성경 구절’로 경기를 이끌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의 ‘신앙고백’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 ©Screenshot: YouTube/Mollianne L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식축구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쿼터백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가 최근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로 24-19 승리를 거둔 경기 전후 인터뷰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신앙을 강조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P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윈스턴 선수가 디비전 선두 스틸러스를 상대할 준비에 대해 묻자 “말은 전쟁을 위해 준비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며 잠언 21장 31절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경기를 앞둔 마음가짐을 전했다.

겨울 날씨 속 경기와 퍼포먼스에 대한 질문에는 “눈 속에서, 진정한 풋볼 날씨에서 경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곳 클리블랜드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CP는 브라운스의 예상치 못한 승리 후, 윈스턴 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로 잠언 3장 5절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며 “나는 언제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CP는 윈스턴 선수가 프로 경력 내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아내와 함께 프로 운동선수들을 위한 영적 수련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2013년 하이즈먼 트로피를 수상한 후 하나님께 감사를 전했다.

그의 소셜미디어에서도 신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의 X(구 트위터) 프로필에는 “1. 하나님 2. 학교 3. 꿈 영원히”라는 소개와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Phil413)을 인용한 해시태그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윈스턴 선수는 2015년 NFL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탬파베이 버커니어스에 지명되며 주목받았다. 대학 시절 하이즈먼 트로피와 NCAA 전국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지만, 성폭행 혐의와 상점 절도 사건 등 논란으로 얼룩진 과거도 있다.

그러나 현재 그는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NFL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교회 설교 장면을 공개하며,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선 안 된다. 뜨겁게, 예수님을 위해 불타오르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승연 기자

CTS, 특선 다큐 ‘성혁명 교육과 위태로운 아이들’ 방송한다

‘젠더 이념’의 폐해와 ‘인류 보편 가치’ 수호 역설

다큐에는 미국 LA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 딸 ‘야엘리’를 잃은 어머니가 등장한다. ©유튜브 에이랩아카데미

CTS가 오는 12월 2일 저녁 7시 30분에 특선 다큐 ‘마지막 경고2: 성혁명 교육과 위태로운 아이들’을 방송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무너져 수십 가지 성(gender)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수많은 선진국에서 해외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가정과 사회의 붕괴를 겪고 있는 사례를 통해 인류 보편적 질서의 가치의 중요성과 진리를 역설한다.

‘문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혼돈에 빠뜨리는 ‘성 혁명’의 물결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젠더와 성에 대한 혼란이 교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퓨 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41%가 동성결혼을 지지했다. 매해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바른 성정체성 교육을 통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운다.

이 다큐는 ‘정씨네 미디어’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마지막 경고1: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의 후속작이다. 다큐멘터리 두 편 모두 (사)한국가족보건협회와 에이랩아카데미(대표 김지연), 한국교회 성도의 모금으로 제작됐다.

이번 2편에는 미국 LA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 딸 ‘야엘리’를 잃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야엘리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15세 무렵 자신의 성정체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학급생들은 야엘리에게 ‘성전환을 통해 남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다. 교장과 교내 심리상담가 역시 야엘리의 성전환을 적극 지지했고, 그녀는 16세에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성전환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울증은 더 심해졌고,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은 그녀를 가족과 분리시켜 강제로 그룹홈에 보냈다. 호르몬 주사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곤 했던 야엘리는 결국 19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어머니는 딸이 그러한 젠더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호소한다.

한편, 재방송은 12월 4일 밤 11시에 송출된다. 다큐 영상은 유튜브 ‘에이랩 아카데미’ 채널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백선영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에세이	50 생명양식 -데일리큐티-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105회) 30 TV강단 삼일(송태근)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95회 경기도 용인 30 복음강단 -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5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00 생명의 양식 대한(윤영민) 30 축복의 말씀 (차영아)(309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선교는 지금 56회 피아니스트 선교사 공민 선교사 1부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샘터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말씀의 샘터 왕성교회 길요나 목사	30 [청소년라이프코칭] 내 마음 일기예보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맨투맨 처치(8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8회)	3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26회 50 노변담화 916회
	8:00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권성수/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2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50 신사랑 프로의 원포인트 골프레슨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	0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471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185회) 요한계시록 43강	00 말씀의 창 -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 30 비전메시지 - 새빛교회 김용일 목사
	9:00	00 [특별생방송] CTSWEEK	00 2024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후원방송	00 CGN 비전특강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	10 새롭게하소서(11214회) 김상인 목사	00 성지가 좋다 459회 사도바울의 3차 전도여행 드로아에서 앗소로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5회
	10:00	00 [특별생방송] CTSWEEK	00 말씀의 샘터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30 말씀의 샘터 여의도침례교회 국명호 목사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파워인터뷰(179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73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1:00	00 [특별생방송] CTSWEEK	00 말씀의 샘터 옥길교회 임재호 목사 30 말씀의 샘터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청소년라이프코칭] 내 마음 일기예보	20 세상을 보는 창(234회) 50 만나다(4회)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95회 경기도 용인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37회 50 성찬의 소리 -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오후	12:00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오병이어교회 금요성령충만집회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인천제일(이제일)	20 비전메시지 -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3:00	00 [생방송] CTS 뉴스 30 [특별방송] CTSWEEK	00 주일예배실황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올포원(584회)	00 힐링토크 회복 712회 (전) 탁구선수 양영자 선교사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4:00	30 [특별방송] CTSWEEK	00 2024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후원방송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웅조 목사(갈보리교회)	00 말씀의 힘 광석(김동찬) 30 CBS 아카데미 숲(222회)	00 믿음의 리액션 1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5:00	30 [특별방송] CTSWEEK	00 2024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후원방송	0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흥규)(4184회) 로마서 25강	00 2024 한소망교회 감사특밤 1회 이지웅 목사
	16:00	30 [특별방송] CTSWEEK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말씀의 샘터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십계명 속 기독교 윤리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1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31회) 50 맛나는 교회(11회)	00 내 삶의 행복 132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정필도 목사의 CTS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샘터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30 말씀의 샘터 분당선교교회 윤귀현 목사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50 영혼의 양식_산위의마을(김영준)	00 선교는 지금 56회 피아니스트 선교사 공민 선교사 1부 50 비전메시지 -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특별방송] CTSWEEK	00 행복플러스 30 한성워십 50 더 메시지	10 잇쉬의 서재 시즌2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포좋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저녁	19:00	00 [특별방송] CTSWEEK	00 말씀의 샘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말씀의 샘터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30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동수(주학선)	00 비전메시지 - 전주산돌교회 김진영 목사 30 복음강단 -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00 [특별방송] CTSWEEK	00 힐링스토리 10 주일예배실황 지구촌교회 서울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TV강단 순복음원당(고경환) 50 크리스천칼럼_중앙성결(한기채)	00 비전메시지 -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 The Life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21:00	30 CTS 뉴스	10 2024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후원방송 10 GOODTV 저녁의 기도 2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50 GOODTV 뉴스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185회) 요한계시록 43강 50 잘 믿고 잘 사는 법(57회)	1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57회
	22:00	00 백석의 시간 3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10 오륜교회 금요철야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너답게-회복프로젝트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214회) 김상인 목사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452회 20 소문난 성경교실 379회 김예환 목사 두 번째 제 5강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9회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철야예배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GOODTV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헌금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00 [컨퍼런스] 언디피티드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10 더 콜링(112회) 30 목사님 궁금해요(80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471회)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3회 40 리바이츠워십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GOODTV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헌금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2024 노아 NCA 콘퍼런스	1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23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28회)	00 만나U 13회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TV찬양예배	00 2024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후원방송	00 교육선교 국제콘퍼런스 4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22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451회)	00 우리함께 찬양해 39회 맑은샘치유교회 1부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0	20 바이블챌린지 30 CTS 특집다큐	00 2024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후원방송	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30 TV강단 대연성결(임석웅)	00 만나 워십
	3:00	20 더 메시지(말씀편)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00 2024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후원방송	00 Cross Conference 〈Undefeated〉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00 맛나는 교회(11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옥한흠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CTS 경건예배 45 곽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	00 말씀의 샘터 원남교회 권기웅 목사 3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맛비	10 [말씀] 박신웅 목사(열바인온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126회) 창세기 35강 50 CBS 교회소식(975회)	0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389회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LOTTE
CHRISTMAS
MARKET
마켓 자세히 보기
롯백 크리스마스 마켓 2024
잠실 | 2024.11.20(수) – 2025.01.05(일)
10:30-22:00 잠실 월드몰 잔디광장
타임빌라스 수원 | 2024.11.28(목) – 2025.01.05(일)
10:30-22:00 타임빌라스 수원점 1F 센터홀 등
LOTTE
DEPARTMENT STORE